1. 『정조실록』
- 정조 20년 11월 25일조

【해제】

조선 후기 대표적인 관찬사료인 『조선왕조실록』에는 1796년(정조 20) 11월 25일조에 김만덕 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만덕의 행적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로서, 크게 세 가지 화소로 되어 있다. 첫째는 기생 만덕이 굶주리는 제주 백성들을 구휼한 일, 둘째는 상을 주려 하자 사양하고 금강산 구경하기를 소원한 일, 셋째는 각 고을로 하여금 만덕의 금강산 구경을 돕도록 한 일 등이 그것이다. 특히 만덕을 기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25일[1] 제주 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들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沿路)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

丙寅 濟州妓萬德 散施貨財賑活饑民 牧使啓問將施賞 萬德辭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 許之 使沿邑給糧

---

1 25일 : 병인(丙寅)일. 1796년(정조 20) 11월 25일.

2.『승정원일기』
- 정조 20년 11월 24일조, 25일조, 28일조

【해제】

조선 후기 대표적인 관찬사료인『승정원일기』에는 김만덕이 상경한 1796년(정조 20) 11월 24일, 25일, 28일 등 3일에 걸쳐 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11월 24일조 기사는 정조가 채제공 · 김이소 · 이병모 · 윤시동 등 시 · 원임대신을 편전에 부른 자리에서 채제공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경한 김만덕에게 금강산 구경으로부터 귀향 때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비변사에 왕명을 내린 내용이다. 11월 25일조 기사는 정조의 명에 따라 김만덕에게 진휼청에서 서울 체재 기간의 양식과 비용을 지급하고, 내의원에서 행수의녀로 임명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 마지막 11월 28일조 기사는 정조에게 올린 만덕전 가운데 하나인 서준보가 쓴 전기를 수록한 내용이다. 특히 서준보의 만덕전에서는 만덕을 사마천의『사기열전』에 나오는 진시황 때 파촉의 청이란 여인에 견주며 칭송하고 있다.

정조 20년 11월 24일

○ 채제공이 말하길, "탐라의 기녀(김만덕)가 재산을 내놓아 백성을 진휼하였는데, 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면천(免賤)[1]하기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왕성을 보고 금강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 그 원

함에 따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겨우 서울에 올라왔는데, 마침 심한 추위를 만나 이 집 저 집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만덕이 신을 찾아와서 울며 호소하는데, 그녀가 비록 천류이지만 그 의가 매우 높고 그 정이 매우 측은하므로, 유사(有司)에 분부하여 별도로 돌보아 주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탐라사람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가엾게 여기는 것이 타도보다 더욱 각별하다. 그녀는 한 천한 기생으로서 의롭게 재물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데 힘을 썼으니 매우 가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원 또한 녹록하지 않아 이미 서울에 올라온 후에 어찌 도로에서 지내며 굶주리게 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그녀에게 물어, 바라는 대로 서울에 머물렀다가 봄이 온 후에 금강산으로 내려 보내 구경할 수 있게 한 다음 양곡과 돈을 지급하여 뱃길로 본향(제주도)에 떠나보냄으로써, (조정에서) 아무런 일도 함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짐의 뜻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라."

이병모가 아뢰길, "신은 비변사에서 이번에 보고한 일 때문에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이번 일은 미세한 일에 불과하다. 대신들이 재상의 시사(時事)로써 들어와 보고하는 것은 전후의 어떤 시한(時限)도 거론하지 말라. 경들은 그제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물러갈 것을 명하였다.

○ 濟恭曰 耽羅妓 捐財賑民 不願受賞 不願免賤 願一觀王城 仍入金剛山 有從願之命 纔上來而適値劇寒 彷徨旅邸 來見臣泣訴 渠雖賤類 其義可尙 其情可憫 分付有司 另加顧恤 似好矣

1 천민의 신분을 면하여 평민이 됨.

上曰 耽羅人之朝家軫恤 視他道尤別 渠以一賤妓 出義捐財 助賑窮民 已極可嘉 而其所願 亦不碌碌 旣已上來之後 何可使呼飢道路 自備局更問于渠 如欲留開春後下送金剛山 使得觀玩後給糧資 津送本鄕 以示無物不遂之意可也 秉模曰 臣於備堂現告事 不勝惶悚矣 上曰 本事不過微細 大臣之以卿宰時事入現告 勿論前後何限 卿其安心可也 仍命退

정조 20년 11월 25일

○ 김계락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어 말하길, “하교하심에 따라 제주 기생 만덕의 거처에 오늘 한 달간 먹을 양식과 비용으로 쌀 1석과 금전 5냥을 제급(題給)[2]하는 뜻을 감히 아뢰옵니다.” 임금께서 전교하기를, “알았다. 쌓인 재산을 널리 베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고 살린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녀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물으니, 상을 받기도 원하지 않고 면천하기고 원하지 않고, 소원은 단지 바다를 건너 서울로 올라가 금강산을 두루 보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심한 추위를 만나 금강산으로 향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록 천한 신분이나, 의기는 옛날의 열협(烈俠)[3]에 비해 부끄러움이 없다. 봄이 올 때까지 양식을 지급하여라. 곧바로 내의원에 충원시켜 행수의녀로 임명하여 수의에 속하게 하여 각별히 돌보아 주고, 금강산을 보고 돌아올 때 연로의 지방관들에게 분부하여 양식

2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쓰던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에 따라 지급함.

3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강함.

과 비용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라."

○ 이정규가 내의원 도제조와 제조의 뜻을 아뢰어 말하길, "진휼청에서 제주 기생 만덕에게 지금 한 달간 먹을 양식과 비용으로 쌀과 돈을 제급한 일을 초기한 비지(批旨)[4] 내에 '알았다. 쌓인 재산을 널리 베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고 살린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녀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물으니, 상을 받기도 원하지 않고 면천하기고 원하지 않고, 소원은 단지 바다를 건너 서울로 올라가 금강산을 두루 보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심한 추위를 만나 금강산으로 향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록 천한 신분이나, 의기는 옛날의 열협에 비해 부끄러움이 없다. 봄이 오면 양식을 지급하여라. 곧바로 내의원 차비대령 행수의녀에 충원시켜 수의에 속하게 하여 각별히 돌보아 주고, 금강산을 보고 돌아올 때 연로의 지방관들에게 분부하여 양식과 비용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라.' 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하교에 의하여 제주의 비 만덕을 차비대령 행수의녀를 가설하여 충원 차임케 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 임금께서 전교하시기를, "알았다." 고 하였다.

○ 金啓洛以賑恤廳言啓曰 衣下敎 濟州妓生萬德處 今朔糧資米一石 錢五兩 題給之意敢啓 傳曰知道 散施貲累 賑活飢口 事聞朝廷 問渠所望 則不願受賞 亦不願免賤 所願只在於涉海上京 轉見金剛云 而仍値劇寒 不得發向 渠雖賤物 義氣不愧古之烈俠 開春間給糧料 直充內醫院 差備待令 行首醫女 屬之首醫各別顧見 見金剛還送時 分付沿路道臣 優給糧資可也

4 상소에 대하여 임금이 내리는 하답.

○ 李鼎揆以內醫院都提調 提調意啓曰 賑恤廳濟州妓生萬德 今朔糧資米錢題給事 草記批旨內 知道 散施貲累 賑活飢口 事聞朝廷 問渠所望 則不願受賞 亦不願免賤 所願只在於涉海上京 轉見金剛云 而仍値劇寒 不得發向 渠雖賤物 義氣不愧古之烈俠 開春間給糧料 直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 屬之首醫各別顧見 見金剛還送時 分付沿路道臣 優給糧資可也 事命下矣 依下敎 濟州婢萬德 差備待令行首醫女 加設充差之意敢啓 傳曰 知道

정조 20년 11월 28일

만덕전 셋을 임금께 올렸는데, 그 가운데 권지승문원 부정자 서준보(徐俊輔)[5]의 것이다. 정조 19년 갑인년에 탐라에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음을 보고하여 왔다. 임금께서 명을 내려 창고를 열고 제주에 가서 백성들을 먹이라고 하였다. 이에 국고에서 돈을 내고 연해안 지역에서 곡식을 내니 그 수가 모두 수만이 되었고 구휼선이 바다에 떴다. 향을 내리어 바다에 제사를 지내니 바다의 파도가 일지 아니하여 많은 배들이 평온하게 바다를 건너 오고갔다. 아! 다음해인 을묘년에 또 굶주림을 보고하니, 한 번 갑인년의 예보다 더하여 자혜를 베풀었다. 그런데도 섬의 백성들은 모두 북녘을 바라보며 (구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계수(稽首)[6]하며, 나라가 흉년이 든 고통

5 1770년(영조 46)~1856년(철종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치수(穉秀), 호는 죽파(竹坡). 1790년(정조 14) 진사시에 장원하였고, 1794년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조선 순조 · 헌종 · 철종 때의 문신.

6 구배(九拜)의 하나. 머리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하는 절이다.

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만덕이란 자가 있었는데, 제주의 관비였다. 어려서부터 척당(倜　)하여[7] 장부의 뜻이 있었다. 비록 노닐며 천하게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하나 몸가짐과 일처리를 함에 왕왕 출입하는 뜻이 있어(명분을 가지고 처신하여) 제주의 관리들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였다. 재산이 넉넉하고 의로움에 돈독하여 사람이 급한 상황에 있으면 천금을 티끌같이 내어놓았다. 항상 작은 섬에 갇혀 있어 그 뛰어남을 펼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다. 당시 제주목사가 관아에 나아가 임금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만덕은 곁에서 언문으로 읽는 것을 듣고는 한숨을 쉬며 말하길,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고 구중(九重)[8]은 깊숙한데, 우리 제주도민을 먹이는 것은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죽을 자를 구하는 것과 같이 시급하다. 우리 소인들이 감히 자신의 재물에 애착을 가져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할 것인가." 드디어 재물을 내어 가난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구휼하니, 전후로 살아난 사람이 수천 명이 되었다.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니 임금님께서 가상히 여겨 제주목사에게 명하여 그녀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게 하였다. 만덕은 사양하며 말하길, "이웃마을 사람들을 구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감히 상을 바라겠습니까." 제주목사가 천역을 면하길 바라는지 묻자, 또한 사양하며 말하길, "천인이 천한 것은 지당할 따름인데 면한들 또한 어찌하겠습니까." 제주목사가 다시금 소원을 물으므로, 이에 말하길, "계속 말하라 하시면 하나가 있을 따름입니다. 제가 수천 리 떨어진 남쪽바다 바깥에 살고 있으면서 한번 서울의 궁궐에 머물며 서울사람과 선비 · 여인들과 더불어 우모(羽旄)[9]를 함께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나라 동쪽에 개골산

7 뜻이 크고 기개가 있음.

8 궁궐을 말함.

(皆骨山)[10]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도 한 번 보는 게 지극한 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탐라는 비록 변방이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시 조선에 속한 지방인지라, 한번 눈여겨 볼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일이 저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제주목사는 그 실상을 보고하니, 임금님께서는 열협하다고 하여 칭찬하여 말을 지급하고 양식을 갖추어 주었다. (만덕이) 서울에 당도하자 태의원에 명하여 그녀를 여의 가운데 으뜸으로 속하게 하고, 선혜청으로 하여금 한 달간 돈과 쌀을 지급케 하였다. (만덕이 서울에 왔을 때에) 큰 눈이 와서 봄을 기다려 금강산에 갈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함으로써, 그 소원을 풀게 하였다. 이에 만덕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 구경하며 그녀를 칭찬하며 말하였다. 진신대부(搢紳大夫)[11]들이 그 일을 기록하고 기이함을 전하니 만덕의 이름이 나라 안에 퍼져나갔다. 아! 재물을 쌓아놓고도 내어놓는 것은 남자라도 하기 힘든 것이고, 공을 세워서 상을 사양함은 사대부들도 판별하지 못하는 일이다. 만덕은 섬 속의 한 여자로서 몸은 관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천하다고들 하여도 이러한 일을 능히 하였으니, 이 어찌 훌륭하다고 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하물며 한 번 서울 궁궐을 구경하겠다는 소원은 진실로 병이(秉彝)[12]함에서 나온 것이며, 하늘이 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섬과 육지를 가리지 않고, 귀천의 경계 없이 금강산 유람은 또한 기이하고 장대하다고 할 것이다. 탐라는 세상 사람들이 영주라고들 칭한다. 만물 중에 빼어난 것으로서, 기린[13], 죽전[14], 귤과 유자

9 새의 깃으로 꾸며 기(旗)에 꽂는 물건.

10 겨울의 금강산을 말함.

11 벼슬아치를 말함.

12 타고난 천성을 그대로 지킴. 타고난 성품.

13 하루에 천 리를 달린다는 말.

등의 특산물이 있어 왕의 조정에 진상되는데, 만덕 또한 이러한 빼어난 종류의 인물이 아니겠는가. 일찍이 파촉(巴蜀)에 청(淸)이라는 여인을 들은 바 있는데, 그는 단혈(丹穴)[15]로써 자신의 부를 세대에 걸쳐 전승하여 진시황이 그를 위해 누대를 축조해 칭송했다.[16] 오늘날 만덕은 파촉의 청과 같은 재물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가[17]의 의리를 겸하였다. 섬 속에서 일어나 이름을 사방에 알렸으니, 태사공[18]으로 하여금 쓰게 한다면, 만덕의 내용은 장차 화식(貨殖)의 열전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열협(烈俠)의 열전에 넣을 것이겠는가.

○ 萬德傳 三 上, 權知承文院副正字 徐俊輔 上之十有九年 甲寅 耽羅告飢 上命發倉往哺之 於是錢出於帑 粟出於沿 厥數皆

14 대나무로 만든 화살.

15 단사(丹沙, 금광)가 채굴되는 굴.

16 여회청대(女懷淸臺)의 고사를 말함.

파(巴 ; 전국시대에 秦나라가 옛 巴나라 땅에 설치한 郡. 江州(지금의 重慶市 북쪽 嘉陵江 북쪽)가 관할 지역이었음) 땅에는 청(淸)이라는 이름의 과부가 있었다. 그녀의 조상이 단사(丹砂, 금광)를 캐내는 동굴을 발견하여 여러 대에 걸쳐 이익을 독점해 왔으므로, 가산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청은 과부였으나 가업을 잘 지키고, 재물을 이용하여 자신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침범당하지 않았다. 진시황은 그녀를 정조가 굳은 부인이라고 여기어 손님으로 대우해 주고, 그녀를 위해서 여회청대(女懷淸臺 ; 지금의 四川省 長壽縣 남쪽에 있음. '懷' 자는 과부의 성씨라는 설도 있음)를 지어주었다.

"巴蜀寡婦淸 其先得丹穴 而擅其利數世家亦不訾 淸寡婦也 能守其業 用財自衛 不見侵犯 秦皇帝以爲貞婦 而客之 爲築女懷淸臺"(司馬遷, 『史記』 卷 129, 貨殖列傳).

17 공자를 말함.

18 사마천을 말함.

萬萬 方舟之汎也 降香祭海 海波不揚 千檣穩涉 如往而復 粵翌年乙卯又告飢 一甲寅之例而加之以慈恩 一島黎庶 咸北望稽首不知荒年之苦也 時有萬德者 州之婢也 少倜 有丈夫志 雖賤娼乎遊 持身處事 往往出入意 官于州者 亦未嘗蔑之 饒於財而篤於義 見人急 芥捐千金 常恨局於彈丸 莫之展其奇 當牧伯之詣舘舍宣布恩綸 萬德從傍聽諺讀 喟然歎曰 重溟遠矣 九重邃矣 粒我島民 如救焚溺 吾儕小人 其敢愛其財而利其己乎 遂散貲累賙貧乏 前後所活 爲數千人 事聞于朝 上嘉之 命牧伯詢其所欲爲 萬德辭曰 周恤隣里常也 敢望償乎 牧伯欲免其役 又辭曰 賤人賤固當爾 免亦奚爲 牧伯固問之 乃曰 無已則有一焉 婢之生在數千里南溟之外 不得一至京闕 與都人士女 同瞻羽旄 且聞國之東 有皆骨山 華人至願一見 耽羅雖僻遠 亦朝鮮之屬州也 可無一寓目乎 遂此兩事至願矣 牧伯以其實聞 上奬之以烈俠 給馬備粻 旣抵洛 命太醫院 屬之女醫之首 惠廳月支錢米時值大雪 使之待春往金剛 俾酬其願 於是萬德之所往 人皆聚觀而稱道之 搢紳大夫 記其事而傳奇 萬德之名 乃播於國中 噫積而能散 男子之所難能 功而辭償 士夫之所難辦也 萬德以島中一女子 身不離婢使之賤而乃能之 豈不偉也哉 又況一見京闕之願 亶出秉彝 信乎天之降衷 不限於島陸 不界於貴賤 金剛之遊 又何奇且壯也 耽羅 世所稱瀛州也 鍾於物 有騏驥竹箭橘柚之屬 供于王庭 萬德亦此類也歟 嘗聞西蜀[19]淸 以丹穴世其富 秦皇爲之築臺而美之 今萬德 有蜀淸之財 而兼魯家之義 起於島中 名聞四方 若使太史公在者 其將編於貨殖之傳耶 烈俠之傳耶

19 파촉(巴蜀)의 오기로 보임.

3.『일성록』
- 정조 20년 6월 6일조, 7월 28일조, 11월 24일조, 11월 25일조

【해제】

조선 후기 대표적인 관찬사료인『일성록』에는 1796년(정조 20) 6월 6일, 7월 28일조와 만덕이 상경한 11월 24일, 25일조 등 4건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6월 6일조 기사는 제주목사 유사모가 만덕이 3백 석의 진휼곡을 바쳤다고 하자 조정에서 그녀가 원하는 바를 물어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월 28일조 기사는 만덕이 출륙을 원한다는 사실을 제주목사 유사모가 왕에게 보고한 장계 내용을 담고 있다. 11월 24일조 기사는 정조가 채제공 · 김이소 · 이병모 · 윤시동 등 시 · 원임대신을 편전에 부른 자리에서 채제공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경한 김만덕에게 금강산 구경으로부터 귀향 때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비변사에 왕명을 내린 내용이다. 11월 25일조 기사는 정조가 김만덕에게 서울 체재 기간의 양식과 비용을 지급하고, 그녀를 내의원에서 행수의녀로 임명하라고 하명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

정조 20년(1796) 6월 6일

제주목사 유사모(柳師模)[1]가 진휼을 마치고 급하게 아뢰니, 임금께서 창고(지방재정)를 연 수령과 (재물을) 스스로 원하여 바친 제

주도 사람들에게 시상을 차등 있게 하라고 명하였다.

유사모 목사가 장계하기를 (중략) 스스로 원하여 바친 제주민 가운데 전 순장 홍삼필은 매년 많은 진휼곡을 보조하였으니, 그 의연 재물을 내는 정성이 지극히 가상합니다. 노기(老妓) 만덕은 순리대로 진짜 구하는 것 없이 또한 재물을 가벼이 내놓았으니, 비천한 신분으로서는 더욱 하기 어려운 바입니다. (중략) 노기 만덕은 스스로 원하여 쌀 3백 석을 바쳤습니다.

임금께서 하교하시기를, "(중략) 전순장(前巡將) 홍삼필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의로움을 드러내 진휼곡을 보조하였으니, 그 정성이 가상하며 그 노고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답을 해야 하므로, 제주도 양읍의 수령 가운데 다음번 또는 가까운 임기 사람이 있다면 해당 관부로 하여금 후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기다려 의망(擬望)[2]토록 하라. 노기 만덕은 그가 어찌 구하고 판별함 없이 이렇게 백 포대에 가까운 흰 쌀을 내어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진휼하고 구제할 수 있단 말인가. 면천(免賤)이나 별단의 수로(酬勞)[3]이건 간에 경은 그가 원하는 바를 좇아 시행한 후에 그 형편을 보고하도록 돌아가서 유시하여라."

이조에서 아뢰어 말하길, "제주판관 조경일, 대정현감 고한록, 정의현감 홍상오 등은 적은 봉급을 출연하여 성심으로 백성들의 목숨

---

1 1796년(정조 20) 4월 이우현(李禹鉉)의 후임으로 제주에 부임하였음. 제주목사로 재임 중 윤음(綸音)을 잘 받들어 『소학(小學)』, 『오륜행실(五倫行實)』 등의 도서를 제주향교 · 대정향교 · 정의향교에 배포하였음. 1797년(정조 21) 6월에 신병으로 제주목사를 사직하였음.

2 삼망(三望)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3 수고나 공로에 대하여 돈으로 보답함.

을 구했으니 매우 가상하다고 할 것이며 조경일과 고한록은 당연히 벼슬을 올려주는 규정에 따라 시상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홍상오는 아마(兒馬)[4]를 하사하여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시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는 모두 임금님께서 내리시는 상에 해당되오니 재가해 주시길 청하옵니다." 임금께서 이에 따랐다.

濟州牧使柳師模 以畢賑馳啓 命捐廩守令願納島人 施賞有差

該牧使狀啓 (중략) 願納州民 前巡將洪三弼 比年補賑穀數夥然 其出義捐財之誠 極爲嘉尙 老妓萬德 理固無求 亦知輕財 卑賤之中 尤所難能 (중략) 老妓萬德 願納正租三百石
敎曰 (중략) 前巡將洪三弼 屢遭出義補賑 其誠可嘉 其勞當酬 島中兩邑守令中 如有準瓜或瓜近人 令該曹後日政差送 否則待窠 卽爲擬望 老妓萬德 渠何所求辦 此近百包白大米 賙飢濟乏乎 免賤與別般酬勞間 卿其從願 施行後 形止狀聞事 回諭 (중략)

○ 吏曹啓言 濟州判官趙敬日 大靜縣監高漢祿 旌義縣監洪相五等 捐出薄廩 誠心拯救 殊甚可嘉 趙敬日高漢祿 似當施以陞敍之典 洪相五則似當施以兒馬賜給之典 而係千恩賞 請 上裁從之

4 조선 시대에, 관리가 작은 공을 세웠을 때 임금이 상으로 내리던 말.

정조 20년 (1796년 7월 28일)

제주목사 유사모가 노기 만덕이 출륙함을 원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급하게 아뢰었다.

제주목사의 장계에 이르길, “전순장 홍삼필은 의롭게 진휼을 보조함으로써 양읍 수령 가운데 자리를 기다렸다가 의망하도록 하였습니다. 노기 만덕은 굶주리고 궁핍한 백성들을 진휼하고 구제함으로써 별단의 노고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이니 그 바람에 따라 시행하라는 왕명이 내렸습니다. 신이 삼가 유지(有旨)[5] 안에 담긴 뜻을 홍삼필과 만덕의 처소에 가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만덕이 아뢴 내용은, 그녀의 나이가 늙었고 자식이 없으므로 면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단지 출륙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따라 출륙하게끔 허락하심이 어떠할지 연유를 급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濟州牧使 柳師模 以老妓萬德 依願出陸 馳啓

該牧使狀啓 以爲前巡將洪三弼 出義補賑 兩邑守令中待窠擬望 老妓萬德 賙饑濟乏 別般酬勞 依願施行事 命下矣 臣謹將有旨內辭意 頒示洪三弼及萬德處 則萬德所告內 渠年老無子 果無免賤之心 只有出陸之願 依其願 許令出陸 緣由馳啓

5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왕명서(王命書).

정조 20년 (1796년 11월 24일)

시 · 원임대신 좌의정 채제공, 판돈녕 김이소, 판부사 이병모, 우의정 윤시동을 편전(便殿)에 불러서 보았다.

(전략) 채제공이 말하길, "탐라의 기녀(김만덕)가 재산을 내놓아 백성을 진휼하였는데, 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면천하기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왕성을 보고 금강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 그 원함에 따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겨우 서울에 올라왔는데, 마침 심한 추위를 만나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김만덕이 신을 찾아와서 울며 호소하는데, 그녀가 비록 천류이지만 그 의가 매우 높고 그 정이 매우 측은하므로, 유사(有司)에 분부하여 별도로 돌보아 주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탐라사람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가엾게 여기는 것이 타도보다 더욱 각별하다. 그녀는 한 천한 기생으로서 의롭게 재물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데 힘을 썼으니 매우 가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원 또한 녹록하지 않아 이미 서울에 올라온 후에 어찌 도로에서 지내며 굶주리게 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그녀에게 물어, 바라는 대로 서울에 머물렀다가 봄이 온 후에 금강산으로 내려 보내 구경할 수 있게 한 다음 양곡과 돈을 지급하여 뱃길로 본향(제주도)에 떠나보냄으로써, (조정에서) 아무런 일도 함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짐의 뜻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라."

이병모가 아뢰길, "신은 비변사에서 이번에 보고한 일 때문에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이번 일은 미세한 일에 불과하다. 대신들이 재상의 시사(時事)로써 들어와 보고하는 것

은 전후의 어떤 시한(時限)도 거론하지 말라. 경들은 그제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물러갈 것을 명하였다.

召見時原任大臣于便殿 左議政 蔡濟恭 判敦寧 金履素 判府事 李秉模 右議政 尹蓍東

(전략) 濟恭曰 耽羅妓捐財賑民 不願受賞 不願免賤 願一觀王城 仍入金剛山 有從願之命 纔上來 而適値極寒 彷徨旅邸 來見臣 泣訴渠 雖賤類其義可尙 其情可憫 分付有司 另加顧恤 似好矣 予曰 耽羅人之朝家軫恤視 他道尤別 渠以一賤妓 出義捐財 助賑窮民 已極可嘉 聞其所願 亦不碌碌 旣已上來之後 何可使呼饑道路 自備局更問于渠如欲留待開春後 下送金剛山 使得觀玩後給糧資 津送本鄕 以示無物 不遂之意 可也

정조 20년(1796) 11월 25일

임금께서 명하시길, "제주의 기녀 만덕을 내의원에 충원시켜 행수 의녀로 임명하여 금강산을 구경하고 돌아갈 때 연로에 분부하여 양식과 비용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여라."

진휼청에서 제주의 기녀 만덕에게 오늘 한 달간 먹을 양식과 비용으로 쌀과 금전을 제급하는 뜻을 아뢰었다. 이에 임금께서 하교하시길, "쌓인 재물을 널리 베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고 살린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녀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물으니, 상을 받기도

원하지 않고 면천하기고 원하지 않고, 소원은 바다를 건너 서울로 올라가 금강산을 두루 보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심한 추위를 만나 금강산으로 향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록 천한 신분이나, 의기는 옛날의 열협(烈俠)[6]에 비해 부끄러움이 없다. 봄이 올 때까지 양식을 지급하여라. 곧바로 내의원에 충원시켜 행수의녀로 임명하여 수의에 속하게 하여 각별히 돌보아 주고, 금강산을 보고 돌아올 때 연로의 지방관들에게 분부하여 양식과 비용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라."

命 濟州妓萬德 充內醫院差備 待令行首醫女 見金剛還送時 分付沿路 優給糧資

賑廳以濟州妓萬德 今朔糧資米錢題給 啓敎曰 散施貲累 賑活飢口 事聞朝廷 問渠所望 則不願受賞 亦不願免賤 所願只在於涉海上京 轉見金剛云 而仍値劇寒不得發向 渠雖賤物 義氣不愧 古之烈俠 開春間給糧料 直充內醫院差備 待令行首醫女 屬之首醫 各別顧見 見金剛 還送時 分付治路道臣 優給糧資

6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강함.

4. 정약용(丁若鏞)의 「중동변(重瞳辨)」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2)

【해제】

『여유당전서』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의 저술을 총정리한 문집이다. 여유당(與猶堂)이란 저자의 당호(堂號)이다. 전서의 내용을 편집의 순위에 따라 설명하면 모두 7집으로 분류되는데, 제1집은 25권 12책으로 시문집, 제2집은 48권 24책으로 경집(經集), 제3집은 24권 12책으로 예집(禮集), 제4집은 4권 2책으로서 악집(樂集), 제5집은 39권 19책으로 정법집(政法集), 제6집은 8권 4책으로 지리집(地理集), 제7집은 6권 3책으로 의학집(醫學集)이다. 제1집은 시문집과 잡찬집(雜纂集)으로 되어 있는데, 시문집에는 부 · 시 · 문(文) · 원(原) · 설 · 계 · 장 · 논 · 변 · 잠 · 명 · 송 · 찬 · 서(序) · 기 · 발 · 제(題) · 서(敍) · 묘지명 · 묘갈명 · 묘표 · 비명 · 제문 · 뇌(誄) · 유사 · 행장 · 전(傳) · 기사(紀事) · 증언(贈言) · 가계(家誡) · 서(書), 그리고 「서암강학기(西巖講學記)」 ·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 · 「잡문(雜文)」 · 「여문(儷文)」 · 「잡평」 · 「산수심원기(汕水尋源記)」 등이 수록되었으며, 잡찬집에는 「문헌비고간오(文獻備考刊誤)」 · 「아언각비」 · 「이담속찬」 · 「소학주관(小學珠串)」이 수록되었다.

이 중 「중동변」은 『여유당전서』 권12의 '변' 에 수록되었다. 만덕의 중동을 가지고 그의 중동에 대한 생각을 펼치고 있다. 겹눈동자라고 한다면 모든 사물이 두 개로 보여야하는데 만덕은 그리 하지 않으

므로 중동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겹눈동자의 대표적 인물로 전해지는 우순(虞舜)과 항적(項籍)도 결코 겹눈동자는 아닐 것이라고 하여 그의 겹눈동자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었다.

【작자】

정약용(丁若鏞). 1762(영조 38)~1836년(헌종 2).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실학자이다. 본관은 나주(羅州)로,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俟菴)·탁옹(籜翁)·태수(苔叟)·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다. 경기도 광주 출신이다.

아버지는 진주목사 재원(載遠)이며, 어머니는 해남 윤씨(海南尹氏)로 두서(斗緖)의 손녀이다. 4남 2녀 중 4남으로, 15세 때 풍천 홍씨(豊川洪氏)를 취하여 6남 3녀를 두었으나 4남 2녀는 요절하고 학연(學淵)·학유(學遊)와 서랑 윤창모(尹昌謨)가 있을 뿐이다.

그의 일생은 대체로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기는 벼슬살이하던 득의의 시절이요, 제2기는 귀양살이하던 환난시절이요, 제3기는 향리로 돌아와 유유자적하던 시절이다. 제1기는 22세 때 경의진사(經義進士)가 되어 줄곧 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시절로서 암행어사·참의·좌우부승지 등을 거쳤으나, 한때 금정찰방·곡산부사 등 외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1800년 6월에 정조가 죽자, 그를 둘러싼 화기(禍機)가 무르익어 1801년 2월 책롱사건(冊籠事件)으로 체포·투옥되었다가 1801년 2월 27일 출옥과 동시에 경상북도 포항 장기(長鬐)로 유배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전라남도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그는 이 기간에 『경세유표』(1817)·『목민심서』(1818) 등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1818년 귀양이 풀리자 고향으로 돌아와 『흠흠신서』와 『상서고훈』 등을 저술하였다.

중동변(重瞳辨)

제주 기생 만덕(萬德)이 재물을 내어놓아 가난한 사람을 진휼(賑恤)[1]했는데 금강산(金剛山) 보기를 청하므로 역마(驛馬)[2]를 불러와서 한양(漢陽)에 이르게 했다. 만덕이 제가 말하기를 "그 눈이 겹눈동자[3]입니다."고 하니 공경(公卿)[4]이 서로 전하여 떠들썩하였다. 내가 그를 불러오게 하고는 묻기를,

"네 눈이 겹눈동자라고 하니, 이것이 있는가."

하니,

"그렇습니다."

했다.

"무릇 궁실(宮室)[5]·누대(樓臺)[6]·초목(草木)·인물(人物)을 네가 보기는 한 개가 모두 두 개로 보이는가?"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 했다.

"그렇다면 너는 겹눈동자가 아니다."

하고는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검고 흰 동자가 조금도 사람들과 다른

---

1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함.

2 역마(驛馬) : 역참에 대기시켜 두고 관용(官用)에 쓰던 말. 역말.

3 겹눈동자 :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 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史記』「項羽本紀論」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4 공경(公卿) : 고관(高官)의 범칭.

5 궁실(宮室) : 제왕의 궁전. 또는 사람이 사는 집.

6 누대(樓臺) : 높고 큰 건축물의 범칭.

점이 없었다. 그런데도 겹눈동자라는 말이 마침내 유행하고 그치지 않으니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스스로 바보짓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대저 동자가 겹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로써 이를 비쳐본다면 누대는 비쳐서 소누대(小樓臺)가 되고 초목은 비쳐서 소초목(小草木)이 되니 그것이 작은 모양이 있는 것은 곧 이 물건을 보는 까닭인데 눈동자를 겹으로 있게 한다면 각각 한 가지 작은 모양으로 비쳐질 것이니 한 가지 물건이 두 개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것은 알기 쉬운 이치이다. 즉, 우순(虞舜)[7]과 항적(項籍)[8]의 눈도 또한 반드시 겹눈동자는 아닐 것이다. 과연 그들이 겹눈동자라면 물건을 보는 것이 어지럽고 뒤섞이어 숫자(數字)와 초목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니 한 사람의 폐인(廢人)[9]이 될 뿐이다.

重瞳辨

濟州妓萬德 捐訾賑恤 請見金剛山 驛召至漢陽 萬德自言厥目重瞳 公卿轉相傳噪 余爲招至 問汝目重瞳 有之乎 曰然 曰凡宮

---

7 우순(虞舜) : 상고(上古)의 성군(聖君). 성은 요(姚), 이름은 중화(重華)이며, '虞'는 그의 조상이 봉(封)해진 나라 이름. 효성이 극진하였고, 요(堯)임금으로부터 왕위를 선양(禪讓)받아 포판(蒲阪)에 도읍하였으며, 남쪽을 순시(巡視)하다가 창오(蒼梧)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함. 재위(在位) 18년.

8 항적(項籍) : 진(秦) 말기 초(楚)의 장수. 자는 우(羽). 숙부 양(梁)과 함께 기병하여 진의 군사를 쳐서 함양(咸陽)을 불사르고 그 임금 자영(子嬰)을 죽인 뒤 자립하여 서초 패왕(西楚霸王)이 됨.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과 천하 제패를 다투다가 해하(垓下)에서 패하여 오강(烏江)에 투신 자살함. 항우(項羽).

9 폐인(廢人)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

室樓臺草本人物 於汝視一皆成兩乎 曰不然 曰然則汝非重瞳矣 逼視之 其黑白睛瞳 了不異人 然而重瞳之說 竟行不熄 人之樂誕自愚如此 大抵瞳之有童 人以人面照之也 樓臺照爲小樓臺 草本照爲小草木 其有小樣 卽所以視此物也 令瞳重設則一瞳各照一小樣 一物不成兩視乎 此易知之理也 卽虞舜項籍之目 亦必非重瞳 令果重也 視物迷錯 不辨數目 一廢人矣

5. 정약용(丁若鏞)의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題耽羅妓萬德所得搢紳大夫贈別詩卷)」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4)

【해제】

이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는 『여유당전서』 권14의 '제' 에 수록되었다. 이 글에서 특이한 것은 만덕에게는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기적(妓籍)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 바다의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세 가지 기특함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로서 중동(重瞳)이고 종의 신분으로서 역마의 부름을 받았고, 기생으로서 중〔僧〕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였고, 외진 섬사람으로 내전(內殿)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라고 하였다.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搢紳大夫)[1]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

을묘년(乙卯年)[2]에 탐라에 기근이 들어 만덕이 재물을 내놓아 이를 진휼하였다. 그 소원을 물으니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였다.

---

1 진신대부(搢紳大夫) : '진신(搢紳)' 은 홀(笏)을 큰 띠에 꽂는다는 뜻. 곧 선비나 사대부를 가리킴.

2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병진년(丙辰年)[3] 가을에 탐라의 기생 만덕이 역마(驛馬)[4]로 서울에 불려왔고, 이듬해 봄에 만덕이 금강산에서 돌아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좌승상(左丞相)[5] 채공(蔡公)[6]이 그를 위해 소전(小傳)[7]을 지어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므로 나는 덧붙이지 않는다. 나는 만덕에게는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적(妓籍)[8]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이 한 가지 기특함이고,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이 두 가지 기특함이고, 바다의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세 가지 기특함이다. 그리고 여자로서 중동(重瞳)[9]이고 종의 신분으로서 역마의 부름을 받았고, 기생으로서 중〔僧〕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였고, 외진 섬사람으로 내전(內殿)[10]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다. 아, 보잘것없는 일개 여자로서 이러한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을 지녔으니, 이 또한 하나의 대단히 기특한 일이다.

---

3 병진년(丙辰年) : 1796년(정조 20).

4 역마(驛馬) : 역참에 대기시켜 두고 관용(官用)에 쓰던 말. 역말.

5 좌승상(左丞相) : '승상' 은 임금을 보좌하는 최고의 벼슬. 곧 좌의정.

6 채공(蔡公) : 채제공(蔡濟恭).

7 소전(小傳) : 사람의 일생을 간략하게 기록한 전기. 곧 「만덕전(萬德傳)」을 가리킴.

8 기적(妓籍) : 기녀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대장.(《宋史》 407 「楊簡傳」 移文首罷妓籍 尊敬賢士)

9 중동(重瞳) : 겹눈동자.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 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史記』 「項羽本紀論」 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10 내전(內殿) : 왕비(王妃)의 존칭.

題耽羅妓萬德所得搢紳大夫贈別詩卷

乙卯耽羅饑 萬德捐振之 詢其願 金剛山也 有聖旨令如願
丙辰秋 耽羅妓萬德 驛至京 越明年春 萬德回自金剛 將還其鄕
左丞相蔡公爲立小傳 叙述頗詳 余不贅 余論萬德 有三奇四稀
妓籍守寡一奇也 高貲樂施二奇也 海居樂山 三奇也 女而重瞳
子 婢而被驛召 妓而令僧肩輿 絶島而受內殿寵錫 四稀也 嗟以
一眇小女子 負此三奇四稀 又一大奇也

6. 채제공(蔡濟恭)의 「설날 혹한에 출유하다(元春苦寒行)」 (『번암집(樊巖集)』 권19)

【해제】

이 글에 수록된 만덕 이야기는 크게 만덕을 노래하고 있는 칠언율시의 전반부와 만덕의 행적을 간략하게 서술한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특히 칠언율시의 "탐라 여협(女俠) 가벼운 몸으로 나왔고 기사(耆社)의 원신(元臣) 지팡이 짚고 왔다네."라는 구절은 나이 많은 대신들이 만덕을 만났음을 노래한 대목이어서 당시의 상황을 대략적이나마 파악하게 한다.

【작자】

채제공(蔡濟恭). 1720(숙종 46)~1799년(정조 23).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본관은 평강(平康)이며,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 시호는 문숙공(文肅公)이다. 그는 1720년(숙종 46년)에 태어나서 1799년(정조 23년)에 돌아갔으니 향년 80세의 수를 누렸다.

그가 태어난 곳은 홍주(洪州) 구봉산(九峯山) 아래 어자동(漁子洞)으로 지금의 청양군(靑陽郡)이다. 그 선대는 죽주(竹州)에 살았고 관직으로 출사할 때는 서울에 있는 청파동(靑坡洞)에 살았다. 그의 부친 응일(應一)은 늦게 진사가 되고 음사(蔭士)로서 두 고을을 살았으나 수부(壽扶)로서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과 동지부사(同知府事)를 지냈고, 특히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제수되고 자귀(子貴)로서 증영의정(贈領議政)으로 추서되었다.

그는 오광운(吳光運)과 강박(姜樸)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채팽윤(蔡彭胤)과 이덕주(李德胄)에게 시를 배웠다. 친우로는 정범조(丁範祖)·신광수(申光洙)·안정복(安鼎福) 등이 있다.

번암은 이러한 숨은 선비의 아들로서 자라 15세에 이미 향시(鄕試)에 급제하였고, 24세(영조 19년)에 정시(庭試)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에 임명되어 관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후로 벼슬이 성균관 전적(典籍), 예조좌랑, 사헌부 지평, 이조좌랑, 사간원정언, 홍문관교리, 호서 암행어사, 도승지, 평안감사, 예조판서, 형조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이르렀다. 특히 1787년(정조 12)에 특명으로 우의정에 임명된 뒤 11년 동안 정승으로 있으면서 영의정 없이 우의정도 지내고 좌의정도 지냈으며, 우의정이나 좌의정 없이 영의정 자리에 있기도 하며 십년독상(十年獨相)이란 말을 들을 만큼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다.

그는 금대(錦帶) 이기환(李家煥),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등과 함께 가장 정조의 사랑을 받아서 서학(西學)으로써 새로운 건설을 도모하였다.

저서로는 『번암집(樊巖集)』 30책이 있는데 권(卷) 55에 14편의 전(傳)이 수록되어 있다.

설날 혹한에 출유하다(元春苦寒行)

(전략) 상원(上元)[1]일은 구름이 끼고 달이 보이지 않아서 문을 닫고 쓸쓸하고 적막하였고, 16일 밤에는 구름이 다 걷히어 월색(月色)은 심히 밝았다.

---

1 상원(上元) : 음력 정월 대보름날.

시랑(侍郎) 공회(公會), 권승선(權承宣) 동야(東野), 최승선(崔承宣) 치회(稚晦), 이검토(李檢討) 사흥(士興) 등이 혜연(惠然)[2]히 찾아왔다. 서로 더불어 십자(十字) 거리에 나가서 걸으면서 소요(逍遙)[3]하니 닭이 몇 번 울었다. 이에 돌아와 여주목사(驪州牧使) 황사술(黃士述)을 생각하였다.

당당한 가절(佳節)[4]이 봄과 같이 돌아오니
달 위 다리 머리엔 재촉하는 발걸음들.
삼경(三更)[5]의 서울거리 하늘과 함께 넓은데
만 리 먼 은하엔 처음으로 눈 열어놓았네.
탐라 여협(女俠)[6] 가벼운 몸으로 나왔고
기사(耆社)[7]의 원신(元臣)[8] 지팡이 짚고 왔다네.
홀로 청심루(淸心樓)[9] 오른 객(客) 있으니
이곳에서 배회함 꿈에라도 가능한 일인가.

---

2 혜연(惠然) : 따르는 모양. 순한 모양. 호의를 표시하는 모양.(「馬瑞辰通釋」 此詩惠而猶惠然也 惠亦當爲順 惠然謂順貌也)

3 소요(逍遙) : 한가롭게 거닒.

4 가절(佳節) : 경사스러운 날. 좋은 명절.

5 삼경(三更) :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

6 여협(女俠) : 의협심이 있는 걸출한 여자.

7 기사(耆社) : 기로소(耆老所). 조선 때 연로(年老)한 임금이나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70세가 넘은 정2품 이상의 문관(文官)을 예우하기 위하여 마련한 곳. 이곳 '영수각(靈壽閣)' 에는 그들의 초상을 걸어 두었음.

8 원신(元臣) : 대신. 중신(重臣).

9 청심루(淸心樓) : 경기도 여주(驪州)의 객관(客館) 북쪽에 있던 누각. 고려 때 세운 것으로 주변의 경관이 아름다워 고려 때 주열(朱悅) · 이곡(李穀) · 이색(李穡) · 한수(韓脩) · 정몽주(鄭夢周) · 이숭인(李崇仁) 등을 위시하여 조선 시대 때

탐라의 기생 만덕(萬德)이 천금(千金)을 내놓아 주린 백성을 진휼(賑恤)[10]하였다. 성상께서 듣고 가상하게 여겨 수신(守臣)[11]에게 명하여 원하는 것을 물어 시행하게 하니, 기생이 대답하기를,

"다른 것은 원하는 것이 없고 다만 상도(上都)[12]를 보고 곧바로 금강산(金剛山)을 보는 것이 원입니다."

라고 하였다. 수신이 이를 듣고 특별히 허락하였다. 이에 기생은 바다를 건너 경사(京師)[13]에 들어왔다. 이로써 밤에 다리를 밟았고, 또한 들으니 수상(首相)도 또한 십자거리에 외출하였는데 금년에 80이 된다고 해서 아울러 그것을 기록하여 승평(昇平)[14]의 사실을 보충하려 한다.

元春苦寒行

(전략)上元 陰曀無月 閉戶涔寂 十六夜 雲陰盡捲 月色明甚 李侍郎公會 權承宣東野 崔承宣稚晦 李檢討士興 惠然來訪 相與出十字街 步屧逍遙 鷄幾鳴 乃還 懷黃驪使君士述堂堂佳節與春回 月上橋頭履舄催 紫陌三更天共濶 銀河萬里雪初開 耽羅女俠輕身出 耆社元臣杖策來 獨有淸心樓上客 可能

서거정(徐居正)·최숙정(崔淑精)·김종직(金宗直)·신용개(申用漑) 등 수많은 문인 학사들이 시를 지어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였음. (『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驪州牧)

10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함.

11 수신(守臣) :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신하. 수령(守令).

12 상도(上都) : 서울.

13 경사(京師) : 서울.

14 승평(昇平) : 해가 오르는 것과 같이 번영하는 태평 세대의 뜻.

於此夢徘徊

耽羅妓萬德捐千金 賑活飢民 上聞而嘉之 命守臣詢所願欲以施妓對以無他願 只願觀上都 仍見金剛山 守臣以聞 特許之 妓越海入京師 以是夜踏橋 又聞首相亦出街路 今年爲八十 並記之以備昇平事實.

7. 채제공(蔡濟恭)의 「만덕전(萬德傳)」
(『번암집(樊巖集)』 권55)

【해제】

『번암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채제공(蔡濟恭)의 시문집으로 60권 27책이다. 권1부터 19까지는 모두 시이며, 권17부터 19까지는 「희년록(稀年錄)」·「임단록(臨湍錄)」으로 역시 시이며, 권20부터 27까지는 소차(疏箚), 권28에는 서계(書啓), 권29에는 헌의(獻議), 권34·35에는 기(記), 권36에는 서(書), 권37·38에는 제문, 권39·40에는 행장, 권41부터 43까지는 시장(諡狀), 권44부터 48까지는 신도비명, 권49부터 53까지는 묘갈명, 권54에는 묘지명, 권55에는 유사·전(傳), 권56에는 발·송(頌)·찬(贊)·반교문(頒敎文)·전(箋)·장(狀)·상량문·설, 권59에는 잡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만덕전」은 《번암집(樊巖集)》권55 전(傳)에 실려 전한다. 이 전에는 「만덕전」을 포함해서 모두 14편의 전 작품이 수록되었다. 즉 순서대로 「충장공박영서전(忠壯公朴永緖傳)」·「이절도전(李節度傳)」·「계암김선생전(溪巖金先生傳)」·「백의사전(白義士傳)」·「이진사전(李進士傳)」·「임효자전(林孝子傳)」·「청풍의부전(淸風義婦傳)」·「박진사전(朴進士傳)」·「이충백전(李忠伯傳)」·「신기금전(辛起金傳)」·「백사량전(白士良傳)」·「애남전(愛南傳)」·「칠분전(七分傳)」 등이다.

이 「만덕전」은 지은이가 정조 임금 때 좌의정으로 있으면서 김만

덕을 직접 서울에서 만나보고 지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김만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김만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만덕이 제주로 돌아오기 전 다시 채제공과 이별하는 장면을 보면 김만덕 역시 채제공을 이승에서는 다시 못 만날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고 있는데, 김만덕이 채제공을 낯선 인물로서가 아니라 반가운 인물로서 대하는 의식구조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만덕이 기생이었다가 양민으로 회복되어 큰 재물을 모으고, 천금을 내어 굶주리는 제주민을 구휼한다는 내용이다. 만덕은 원래 양가의 딸이었으나 어렸을 적 부모를 여의어 의탁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기생이 된다. 그러나 그녀는 자라면서 기생이 된 것을 후회하고 관가에 하소연하고 기안(妓案)에서 그의 이름을 지운다. 양기로 되돌아온 그녀는 사내들을 머슴으로 부리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헤아리고 장사를 하여 큰 부자가 된다. 1795년(정조 19) 제주에 큰 흉년이 들자 천금을 내어놓아 육지의 여러 고을에서 쌀을 사들이고 그 중 십분의 일로서는 친족들을 구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내놓아 기아에 허덕이는 제주민들에게 나눠 주도록 한다.

둘째 부분은 이 사실이 임금께 보고되어 그 상급으로 대궐과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다는 만덕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만덕의 선행이 제주목사를 통해 조정에 알려지자 정조 임금께서는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이에 만덕은 한 번 서울에 올라가서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을 보고,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 이천 봉을 보고 싶다고 함으로써 그 소원이 받아들여진다.

셋째 부분은 이에 따라 만덕이 서울에 상경하여 내의원(內醫院) 반수(班首)가 되어 대궐을 둘러보게 되며, 이후 금강산의 만폭동(萬

瀑洞)·중향성(衆香城)·안문령(雁門嶺)·유점사(楡岾寺)·총석정(叢石亭) 등을 둘러보고 서울로 되돌아온다는 내용이다. 특히 만덕이 금강산 구경길에 오를 때에는 관가에 명을 내려 노자돈과 역마를 주고, 음식을 번갈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덕이 서울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공경대부와 사(士)들이 만덕의 얼굴 한 번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 넷째 부분은 만덕이 제주로 되돌아오기 전 채제공과 이별하면서 아쉬워하는 내용이다. 이에 채제공은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그 둘인 한라산과 금강산을 각각 올랐으니 이는 남자들도 하기 힘든 영광이었다고 하면서 만덕을 위로하면서, 「만덕전」을 써 준다는 내용이다.

만덕전

만덕의 성은 김씨이니 탐라(耽羅)[1]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돌아가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조금 자라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妓案)[2]에 올렸다. 만덕이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하였으나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나이 이십여 세 되었을 때 그 사정을 울며 관가에 하소연하니 관가에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기안에서 그의 이름을 없애고 다시금 양민으로 되돌려 주었다. 만덕은 비록 집에 거하면서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

1 탐라(耽羅) : 제주의 옛 이름.

2 기안(妓案) : 관아(官衙)에서 기생의 이름을 기록하여 둔 책.

재화를 늘리는 데에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 놓거나 했다. 그런 지 몇 십 년 만에 제법 부자로 이름이 드높았다. 우리 임금 19년 을묘년(乙卯年)[3]에 탐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의 죽은 시신이 더미로 쌓였다. 임금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구제하기를 명령했다. 바닷길 팔백 리에 바람 편에 오가는 돛대가 북[4]처럼 재빨랐으나 오히려 미치지 못했다.

이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취하여 그의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날랐다. 그리하여 부황(浮黃)[5] 난 자가 그 소문을 듣고 관청 마당에 모여들기를 마치 구름 같았다. 관가에서는 그 완급(緩急)[6]을 조정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들 남녀는 모두 만덕의 은혜를 찬송하여,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네."

라고 했다. 진휼이 끝난 뒤에 목사가 그 일을 조정에 올리니 임금이 기이하게 여겨서,

"만덕이 만일 소원이 있다면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돌보아 주겠다."

하고 회유(回諭)했다. 목사는 그제야 만덕을 불러서 임금의 말씀대로,

"너는 무슨 소원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만덕은,

---

3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4 북 : 피륙을 짤 때 씨실의 꾸리를 넣는, 베틀 부속품의 하나.

5 부황(浮黃) : 오랫동안 굶주려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6 완급(緩急) : 위급함의 느림과 빠름.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 이천 봉[7]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다. 대개 탐라의 여인들은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함이 나라의 법이었다. 목사가 또 그의 소원을 올리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의 소원대로 하라 하여 관가에서 노수(路需)[8]와 역마(驛馬)[9]를 주고, 음식을 번갈아서 제공케 했다.

만덕은 드디어 배를 타고 만경의 푸른 바다를 건너서 병진년(丙辰年)[10] 가을에 서울에 들어와서 채상국(蔡相國)[11]을 한두 번 만났다. 상국은 그 사실을 임금께 여쭈어서 선혜청(宣惠廳)[12]에 명령하여 달마다 식량을 대주었다. 그런 지 며칠 만에 그로써 내의원(內醫院)[13] 의녀(醫女)[14]를 삼아서 모든 의녀의 반수(班首)[15]에 두었다. 만덕은 이전에 있던 사례에 의하여 궁궐 안에 있는 문 안에 들어가 문안을 드렸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여시(女侍)[16]로 하여금 말씀을 내렸다.

---

7 일만 이천 봉 : 실제 금강산의 봉우리가 일만 이천 봉우리인 것은 아니며, 일만 이천 봉은 불경에서 유래된 말로 그만큼 봉우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 말임.

8 노수(路需) : 노자(路資). 여비.

9 역마(驛馬) : 포마(鋪馬). 역참에 준비되어 있는 말.

10 병진년(丙辰年) : 1796년(정조 20).

11 채상국(蔡相國) :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상국'은 영의정 및 좌·우의정의 총칭.

12 선혜청(宣惠廳) : 조선 때 대동법(大同法)이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면서 이의 관리를 위하여 두었던 관청.

13 내의원(內醫院) : 조선 때 삼의사(三醫司)의 하나. 대궐 안에서 소요되는 의약(醫藥)을 맡아보던 관청.

14 의녀(醫女) : 조선 때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던 여자 의원(醫員).

15 반수(班首) : 우두머리.

"네, 한 개 여자로서 의기(義氣)[17]를 내어서 주린 백성 천여 명을 구제했으니 갸륵한 일이로다."

그리고 상사(賞賜)[18]한 것이 많았다. 그런지 반 년 만인 정사년(丁巳年)[19] 삼월에 금강산에 들어가 만폭동(萬瀑洞)[20]·중향성(衆香城)[21]의 기이한 경치를 다 구경하였다. 금불(金佛)을 만나서는 반드시 절하고 공양 드려 그 정성을 극진히 했다. 이는 대체로 불법이 탐라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까닭에 만덕이 나이가 쉰 여덟이었으나 이제 처음 절과 부처를 구경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안문령(雁門嶺)[22]를 넘어서 유점사(楡岾寺)[23]를 거쳐 고성(高城)[24]으로 내려가 삼일포(三日浦)[25]에서 배를 타고 통천(通

16 여시(女侍) : 궁궐 안에서 대전(大殿)·내전(內殿)을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의 총칭.

17 의기(義氣) : 의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기개.

18 상사(賞賜) : 공로·선행(善行)을 기려서 금품을 내려 줌.

19 정사년(丁巳年) : 1797년(정조 21).

20 만폭동(萬瀑洞) : 금강대 아래 원통골에서 내륙 깊숙이 마하연이 있는 백운동 입구로부터 약 17㎞에 이르는 구간. 수많은 담소와 폭포 그리고 기암괴석이 즐비하게 늘어서 금강산의 계곡미를 대표하는 곳으로 유명함.

21 중향성(衆香城) : 내금강(內金剛)의 영랑봉(永郎峰) 동남쪽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하얀 바위섬.

22 안문령(雁門嶺) : 내금강에서 외금강으로 넘어오는 고개.

23 유점사(楡岾寺) : 외금강의 구룡연(九龍淵)을 지나 청룡산과 남산 사이에 있음. 31본산의 하나로서 임진왜란 때에는 서산대사(西山大師)와 사명당(四溟堂), 그리고 처영대사(處英大師)가 승병을 일으켰던 근거지이기도 하며, 유명한 금강 53불이 봉안되어 있기도 함.

24 고성(高城) :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한 지금의 고성군. 북은 통천군, 동은 동해, 남은 양양, 서는 회양, 서북부는 태백산맥이 뻗어 험준한 산지, 동남부는 완경사를 이룸. 이 지역에 외금강, 신금강, 해금강 등의 경승지 및 온정리 온천과 명승고적이 많음.

川)[26] 총석정(叢石亭)[27]에 올라 천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구경을 한 뒤로 서울로 다시금 돌아와서 며칠을 머무르고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원(內院)[28]에 들어가서 물러감을 고했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앞서와 같이 상을 내렸다.

이때엔 만덕의 이름이 서울 안에 가득하여 공경대부(公卿大夫)[29]와 사(士)[30] 모두 한 번 만덕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 없었다.

만덕이 떠날 때에 채상국을 보고 목메인 소리로,

"이승에선 다시금 대감의 얼굴을 뵈올 수 없겠습니다."

하고 이내 산연(潸然)[31]히 눈물을 흘렸다.

채상국은,

"옛날 진시황(秦始皇)[32]과 한무제(漢武帝)[33]는 모두들 '해외에 삼

---

25 삼일포(三日浦) :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 둘레는 8㎞, 물 깊이는 9~13m에 이름. 사선정(四仙亭)·단서암(丹書巖) 등이 있고, 호수 풍경으로는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곳으로 꼽힘.

26 통천(通川) : 강원도 북동부에 위치.

27 총석정(叢石亭) : 관동 8경의 하나이며, 약 1천 미터 구간에 6각(혹은 8각, 4각, 5각) 모가 반듯하고 곧게 선 돌기둥의 무리임. 바위에 구멍이 뚫린 천도를 비롯하여 입총(立叢, 서 있는 것)·좌총(坐叢, 앉은 것)·와총(臥叢, 누운 것) 등의 기암괴석이 무수함. 입총 가운데 큰 것은 높이가 12~20m에 이름.

28 내원(內院) : 비빈(妃嬪)들이 거처하는 궁궐 안의 궁실(宮室).

29 공경대부(公卿大夫) : 벼슬이 높은 사람들.

30 사(士) : 문벌이 높은 사람.

31 산연(潸然) : 눈물을 흘리는 모양.

32 진시황(秦始皇) : 진(秦)의 초대 황제. 육국(六國)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중앙 집권적 왕조를 건설하고 스스로 시황제(始皇帝)라 함. 항양(咸陽)으로 도읍을 옮기고 봉건제(封建制)를 폐지, 처음으로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였으며, 화폐·도량형(度量衡)·문자·물품의 규격을 통일함. 이사(李斯)의 의견을 듣고 분서 갱유(焚書坑儒)를 하고 장성(長城)을 쌓았음.

신산(三神山)[34]이 있다' 하였고, 또 세상에서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한라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영주산(瀛洲山)[35]이요, 금강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봉래산[36]이 아닌가. 넌 이미 탐라에 자라나서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白鹿潭)[37]의 물을 떠내고, 이제 또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였으니, 이는 삼신산 중에서 그 둘은 벌써 너에게 점령되었지 않은가. 온 천하 수많은 사내 중에서 이런 복을 누린 자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직을 당해서 도리어 아녀자의 가련한 태도를 짓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위안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서술하여 만덕전(萬德傳)을 써서 한 번 웃으며 그에게 주었다. 이때는 우리 임금 21년 정사년(丁巳年)[38] 하지(夏至)[39]였다. 번암(樊巖)[40] 채상국의 나이가 일흔 여덟에 이 글을 충간의담헌(忠肝義膽軒)[41]에서 쓰다.

---

33 한무제(漢武帝) : 한 경제(漢景帝)의 아들로 이름은 철(徹). 재위 54년 동안 유학(儒學)을 숭상하였으며, 군사를 일으켜 판도(版圖)를 크게 넓혔음.

34 삼신산(三神山) : 신선이 살고 있다는 세 산. 봉래산(蓬萊山)·방장산(方丈山)·영주산(瀛洲山)으로 각각 금강산(金剛山)·지리산(智異山)·한라산(漢拏山)을 가리킴.

35 영주산(瀛洲山) : 원래는 동해 가운데 있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의 하나. 여기서는 한라산을 가리킴.

36 봉래산(蓬萊山) : 신선이 산다고 하는 신령한 산. 여름철의 금강산의 딴 이름.

37 백록담(白鹿潭) : 한라산의 산정에 있는 직경 약 500m, 둘레 1.5㎞ 내외의 대분화구.

38 정사년(丁巳年) : 1797년(정조 21).

39 하지(夏至) :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의 하나로 1년 중 가장 낮이 긴 날로 음력 6월 21·22일경.

40 번암(樊巖) : 채제공의 호.

41 충간의담헌(忠肝義膽軒) : 채제공의 서재 이름.

萬德傳

萬德者 姓金 耽羅良家女也 幼失母 無所歸依 托妓女爲生 稍長 官府籍萬德名妓案 萬德雖屈首妓於役 其自待不以妓也 年二十餘 以其情泣訴於官 官矜之 除妓案 復歸之良 萬德雖家居乎 庸奴耽羅丈夫 不迎夫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聖上十九年乙卯 耽羅大饑 民相枕死 上命般粟往哺 鯨海八百里 風檣來往如梭 猶有未及時者 於是 萬德捐千金 貿米陸地諸郡縣 棹夫以時至 萬德取十之一 以活親族其餘盡輸之官 浮黃者聞之 集官庭如雲 官劑其緩急 分與之有差 南若女 出而頌萬德之恩 咸以爲活我者萬德 賑訖 牧臣上其事于朝 上大奇之 回諭曰 萬德如有所願 無問難與易 特施之 牧臣招萬德 以上諭諭之曰 若有所願 萬德對曰 無所願 願一入京都 瞻望聖人在處 仍入金剛山 萬二千峯 死無恨矣 蓋耽羅女人之禁 不得越海而陸 國法也 牧臣又以其願上 上命如其願 官給舖馬 遞供饋 萬德一帆踔雲海萬頃 以丙辰秋 入京師 一再見蔡相國 相國以其狀白上 命宣惠廳 月給糧 居數日 命爲內醫院醫女 俾居諸醫女班首 萬德依例 詣內閤門問安 殿宮各以女侍傳敎曰 爾以一女子 出義氣 救饑餓千百名 奇哉 賞賜甚厚 居半載 用丁巳暮春 入金剛山 歷探萬瀑衆香奇勝 遇金佛輒頂禮 供養盡其省 蓋佛法不入耽羅國 萬德時年五十八 始見有梵宇佛像也 卒乃踰雁門嶺 由楡岾下高城 泛舟三日浦 登通川之叢石亭 以盡天下瑰觀 然後還入京 留若干日 將歸故國 詣內院 告以歸 殿宮皆賞賜如前 當是時 萬德名滿王城 公卿大夫士 無不願一見萬德面 萬德臨行 辭蔡相國 哽咽曰 此生不可復瞻相公顔貌 仍潸然泣下 相國曰 秦皇漢武 皆稱 海外有三神山 世言 我國之漢

拏 卽所謂瀛洲 金剛卽所謂蓬萊 若生長耽羅 登漢拏 㪺白鹿潭水 今又踏遍金剛 三神之中 其二皆爲若所句攬 天下之億兆男子 有能是者否 今臨別 乃反有兒女子剌剌態 何也 於是 敍其事爲萬德傳 笑而與之 聖上二十一年丁巳夏至日 樊巖蔡相國七十八 書于忠肝義膽軒(蔡濟恭,『樊巖集』권55, 傳)

8. 이재채(李載采)의 「만덕전(万德傳)」
(『오원집(五園集)』)

【해제】

『오원집』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재채(李載采)의 시문집이다.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자 및 편집경위를 알 수 없다. 시 48수, 전(傳) 1편, 소(疏) 1편, 서(序) 5편, 기(記) 5편, 명(銘)·제문·행장·잡고·서(書) 각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덕전(万德傳)」은 1794년(정조 18) 제주에 흉년이 들자 국가에서 곡식을 운송하여 구휼하였으나 기아를 면하지 못하는데 만덕이 곡식을 내놓아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그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의 소원대로 금강산과 대궐을 구경하였다는 기록이다. 특히 심노숭(沈魯崇)이 만덕을 위선적인 여자라고 묘사한 반면 이재채는 이 작품에서 전문(傳聞)에 의하여 의협(義俠) 여성상으로 그려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작자】

이재채(李載采). 자는 채부(采夫)이고, 호는 오원(五園)이다. 염계(剡溪) 이잠(李潛)의 증손이고, 정산(貞山) 이병휴(李秉休)의 손자이며, 이명환(李鳴煥)의 아들이다. 그이 문집인 『오원집(五遠集)』에 실린 글을 통해서 보면 그가 대체로 정조·순조 연간에 활동했으며, 그가 학생을 가르치던 숙사(塾師)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용 중에 평양과 공주를 여행한 사실이 보인다.

만덕전

만덕(萬德)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1]의 과부이다. 머나먼 남해에 있는 제주는 옛날의 탐라국(耽羅國)이다. 정조 갑인년(甲寅年)[2]과 을묘년(乙卯年)[3]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제주도에도 거듭 기근이 들어 조정에서 배로 곡식을 실어다가 구휼하였지만, 굶어 죽는 시체가 이어졌다. 만덕은 수백 섬의 곡식을 저축하였는데, 이때 곡식을 풀어서 구휼하여 목숨을 구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 일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조정에서 탐라 목사에게 만덕의 소원을 묻게 하였다. 만덕은,

"다른 소원은 없지만, 한 번 궁궐에 가서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 뵙고, 금강산에 들어가 비로봉(毗盧峯)[4] 정상에 올라 일만 이천 봉[5]을 모두 구경한 뒤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자, 정조는 이를 기특하게 여겼다.

병진년(丙辰年)[6] 가을 만덕에게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여 대궐에 와서 내의원(內醫院)[7]에서 하교를 기다리게 하였는데, 소관(小

---

1 제주목(濟州牧) : 조선조 때 제주도의 행정구역을 셋으로 나누었는데, 한라산 북쪽을 제주목(濟州牧)이라 하고 산 남쪽을 동서로 나누어 서쪽을 대정현(大靜縣), 동쪽을 정의현(旌義縣)이라 했음.

2 갑인년(甲寅年) : 1794년(정조 18).

3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4 비로봉(毗盧峯) : 강원도 고성군 장전읍(長箭邑)과 회양군 내금강면(內金剛面) 사이에 있는 금강산의 최고봉. 높이 1,638m.

5 일만 이천 봉 : 실제 금강산의 봉우리가 일만 이천 봉우리인 것은 아니며, 일만 이천 봉은 불경에서 유래된 말로 그만큼 봉우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 말임.

6 병진년(丙辰年) : 1796년(정조 20).

7 내의원(內醫院) : 조선 때 삼의사(三醫司)의 하나. 대궐 안에서 소요되는 의약(醫

官)으로 대접하였다. 이듬해 정사년(丁巳年)[8] 봄에 음식과 역마를 제공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고 몇 달 후에 서울로 돌아왔다. 이로 인해 만덕의 이름이 사방에 알려지게 되었다. 만덕이 이윽고 제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니, 또 역마를 타고 내려가 제주로 돌아가게 하였다.

처음 만덕이 서울에 왔을 적에 윤상국(尹相國)의 소부(小婦)[9]가 사는 처소에서 묵었다. 한 달쯤 지나 만덕이 돈 천오백을 싸들고 가서 소부에게 감사의 마음이나마 전하려고 하였다.

"이제 거처를 정했습니다. 댁에서 고맙게도 오랫동안 편안히 머물렀기에 성의나마 표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답을 바라서 대접했겠나?"

소부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니, 만덕이 그냥 돈을 싸 가지고 갔다.

며칠 뒤에 만덕이 길을 지나다가 소부에게 들러 문안인사를 하자, 소부가 조용히 만덕에게 말하였다.

"우리집 노복들이 '만덕이 돈을 싸들고 왔는데 아씨께서 사양하였다고 하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과 온종일 즐기며 돈을 다 써버려야 하잖아. 누가 만덕을 여자 의협(義俠)[10]이라 하는가?' 하였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지요. 더구나 돈 천여 꿰미가 밥 한 그릇에 비길 바이겠습니까."

서울의 악소(惡少)[11] 중에 만덕이 재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접

藥)을 맡아보던 관청.

8 정사년(丁巳年) : 1797년(정조 21).

9 소부(小婦) : 첩.(『漢書』「元后傳」(王) 鳳知其小婦弟張美人嘗已適人)

10 의협(義俠) : 정의를 위하여 강자에 맞서서 약자를 도움. 또는 그런 사람.

근하려는 자가 있었다. 만덕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내 나이 쉰 살이다. 저들은 내 얼굴을 예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물이 탐나서 그런 것이다.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기에도 부족한데, 어느 겨를에 탕자(蕩子)[12]를 살찌우겠는가."

万德傳

万德 全羅道濟州牧寡女也 州在極南海中 古乇羅國也 今上甲寅乙卯 歲大侵 州民荐饑 朝家雖船粟就哺 餓殍相枕 万德預居積數百斛 至是出而賙之 所全活甚多 事聞于朝 命下乇羅守臣問万德所欲願 万德對 無所願 願一登天陛 仰覩聖人 因入金剛登毘盧絶頂 周覽万二千峰而歸 上奇之 丙辰秋 命乘傳詣闕 待教內醫院 視斗食 翌年丁巳春 給廚傳 遊金剛 凡數易月 還到京師 於是 万德名聞四方矣 已而乞歸 又乘傳還乇羅 初万德入京師 客尹相國小婦所 月餘 以錢千五百往謝曰 今則定舘他所 顧受惠宅上 久矣 敢布鄙誠 小婦笑曰 吾豈食女望報邪 万德因齎去 後値過 候小婦 小婦從容言曰 聞門下僕使輩謂女旣齎錢入門 小君固不受 獨不可與吾曹一日虞飮罷也 誰謂万德女義俠 万德謝曰 善用財者 簞食亦能濟餓人命 否則糞土也 錢千餘 又豈特簞食也哉 京師惡少 聞万德財雄 欲褻狎之 万德曰 吾年五十餘矣 彼非艷我貌也 艷我財也 吾方且顚連之周恤不贍 奚暇肥蕩子乎 拒絶之

---

11 악소(惡少) : 행실이 좋지 못한 젊은이. 악자(惡子).(『荀子』「脩身」無廉恥而嗜乎飮食 則可謂惡小者矣)

12 탕자(蕩子) : 방탕한 사람.

9. 심노숭(沈魯崇)의 「계섬전(桂纖傳)」
(『효전산고(孝田散稿)』 권7)

【해제】

『효전산고』는 조선 후기의 학자이며 문신인 심노숭(沈魯崇)의 시문집이로 38책으로 되어 있다. 제1책부터 5책까지는 시, 제6책부터 12책까지는 잡저(雜著), 제13책부터 15책은 지사록(志事錄), 제16책은 문(文), 제17책부터 20책은 술선지(述先志), 제21책은 포빙여통집(抱氷餘痛集), 제22·23책은 자저기년(自著紀年), 제27책부터 29책은 주묵여간(朱墨餘間), 제30책은 이후록(貽後錄), 제31책은 문, 제32책은 악몽록(噩夢錄), 제33·34책은 자저실기(自著實紀), 제35책은 문(文), 제36·37책은 문시일록(問寺日錄), 제38책은 성교일록(城郊日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만덕의 이야기는 권귀(權貴)에 맞서 진정한 예술과 자아를 찾고자 했던 한 기생의 불우한 인생 역정을 기술한 작품인 「계섬전」의 후반부에 서술되었다. 이 「계섬전」에 수록된 만덕 이야기는 만덕을 부정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만덕은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서 남자들의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날 정도여서 남자들로부터 빼앗은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었다. 특히 육지에서 온 상인들은 만덕으로 패가망신하는 이가 여럿이었고 그로 인해 만덕은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다른 「만덕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사항이다.

【작자】

심노숭(沈魯崇). 1762(영조 38)~1837년(순조 3).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이다. 본관은 청송으로 자는 태등(泰登)이며, 호는 몽산거사(夢山居士) · 효전(孝田)이다. 제주목사를 역임한 심낙수(沈樂洙)와 한산 이씨 사이에서 2난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만사(晩沙) 심지원(沈之源)의 7대손이다.

1786년(정조 10)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고, 1790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97년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으로 기용되었고, 이듬해 사도시봉사(司　寺奉事)로 옮겼다. 1801년(순조 1) 당쟁에 휘말려 기장현(機張縣)에 유배되었다가 5년 만에 풀려났다. 1807년 다시 서용되어 의금부도사 · 형조정랑 · 임천군수(林川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나 편저로는 문집 『효전산고(孝田散稿)』 · 『적선세가(積善世家)』 · 『대동패림(大東稗林)』 등이 있다.

계섬전

(전략) 지난해[1] 제주 기녀 만덕이 곡식을 내어 진휼하니 조정에서는 그녀를 예국(隷局)의 우두머리 종으로 삼고 금강산 유람까지 시켜 주면서 말과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조정의 학사(學士)[2]들로 하여금 그의 전(傳)까지 짓도록 명하여 규장각(奎章閣)[3]의 여러 학사들

1 지난해 : 1796년(정조 20). 병진년(丙辰年).

2 학사(學士) : 학식 있는 사람. 학자.

3 규장각(奎章閣) : 조선 정조(正祖) 원년(1776)에 설치하여 역대(歷代) 임금의 저술(著述) · 필적(筆跡) · 고명(顧命) · 유교(遺敎) · 선보(璿譜) · 보감(寶鑑) 및 정조의 어진(御眞)을 보관하던 관아.

을 시험하였다. 지난날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다. 만덕은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그 남자가 입은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으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남자의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었다. 매번 쭉 늘어놓고 햇볕에 말릴 때면, 군(郡)의 기녀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더니 이리하여 그녀는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다가 도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인데, 그녀의 말이 웅대하여 볼 만하다고 여겨 여러 학사들은 전을 지어 많이 칭송하였다.

내가 「계섬전(桂纖傳)」[4]을 짓고 나서 다시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인다. 무릇 세상의 명(名)과 실(實)이 어긋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음을 혼자 슬퍼하나니 계섬의 이른바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桂纖傳

(전략) 前年耽羅妓萬德出粟助賑 朝廷驛召隸局婢首 遊金剛往來 乘驛官饋 命題敍傳 試閣中諸學士 此古所未有皆艷道之 嚮余在島中 聞德事頗祥 性凶恪 視金從之 金盡而去 輒奪其衣袴

4 계섬전(桂纖傳) : 이 작품은 심노숭(沈魯崇)이 가기(歌妓) 계섬의 불우한 인생 유전(流轉)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지은 작품. 계섬은 18세기에 활약한 유명한 예인(藝人) 집단인 이세춘(李世春) 그룹의 일원으로 알려진 인물임. 만덕 이야기는 이 「계섬전」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음.

所臟男子衣袴累百數 每纚纚出點晒 郡妓唾罵之 北商以德敗者相續 德富甲一島 兄弟有丐食者不顧 至是 島飢納穀 願至京遊金剛 謂其言落落有可觀 諸學士敍傳多稱之 余旣爲桂纖傳 又附見萬德事如此 竊悲夫世之名實相舛者多此類 若纖所謂遇不遇又何足道也

10. 조수삼(趙秀三)의 「만덕(萬德)」
(『추재집(秋齋集)』 권7)

【해제】

『추재집』은 조선 후기 여항시인(閭巷詩人) 조수삼(趙秀三)의 8권 4책의 시문집이다. 권1로부터 6은 시, 권7은 고려궁사 · 추재기이 · 외이죽지사(外夷竹枝詞) · 공령시(功令詩), 권8은 서(序) · 기(記) · 전(傳) · 제문(祭文) · 상량문(上樑文) · 전(箋) · 계(啓) · 서(書) · 찬(贊) · 명(銘) · 발(跋) · 지(識) · 서후(書後) · 잡저(雜著) · 부(賦) · 세시기(歲時記), 부록은 추재선생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조수삼의 『추재집』권7의 『추재기이』 중 '시(詩)' 편에 수록되었다. 『추재기이』는 조선 후기 도시 하층서민들의 시정생활을 그려낸 것으로 그 구성방식이 특이한데, 우선 제목 아래 간단한 인물중심의 일화를 적고, 그 내용을 다시 칠언절구로 압축하였다. 마찬가지로 만덕의 이야기도 앞부분은 만덕에 대한 대강의 이야기를 서술하였고, 뒷부분은 만덕에 대한 칠언절구 한시가 한 수 수록되었다. 전반부의 만덕에 대한 대강의 이야기는 극도로 축약된 형태인데, 특이한 것은 만덕의 눈동자를 중동(重瞳)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후반부의 한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로서 채제공의 「만덕전」에도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작자】

조수삼(趙秀三). 1762(영조 38)~1849년(헌종 15). 조선 후기의 여

항시인(閭巷詩人)으로 본관은 한양(漢陽)이며, 초명은 경유(景濰), 자는 지원(芝園) 또는 자익(子翼), 호는 추재(秋齋) 또는 경원(經畹)이다. 가선대부 한성부좌윤 겸 오위도총부부총관(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된 원문(元文)의 아들이며, 여항시인 경렴(景濂)의 동생이고, 조선 말기의 화원(畵員)인 중묵(重默)은 그의 손자이다. 아들 4형제가 있고 손자 · 증손이 다수이다. 88세로 세상을 떠났다.

신분의 제한으로 1844년(헌종 10) 83세의 나이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니 고급관원들이 몸소 와서 축하하는 이가 수십 인이나 되었다.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핵심적인 인물로 활동하였으며, 정이조(丁彝祚) · 이단전(李亶佃) · 강진(姜溍) · 조희룡(趙熙龍) · 김낙서(金洛瑞) · 장혼(張混) · 박윤묵(朴允默) 등 여항시인과 사귀었으며, 김정희(金正喜) · 김명희(金命喜) · 조인영(趙寅永) · 조만영(趙萬永) · 한치원(韓致元) · 남상교(南尙敎) · 이만용(李晩用) 등 당시의 쟁쟁한 사대부들과도 친밀히 지냈다.

풍채가 아름답고 연하(煙霞)의 기운이 있었으며, 문(文)과 시(詩)는 크고 넓었으되 시에 가장 뛰어났다. 여섯 번이나 중국에 유람하여 사해내(四海內)의 시인들과 교유하였으니 그의 시파는 오로지 압록강의 동쪽에만 있지 않았다. 세상이 말하기를,

"추재(秋齋)가 학문이나 지식을 많이 쌓은 것이 무릇 열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그 중에 한 가지만 얻는다면 일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첫째는 풍도(風度), 둘째는 시문(詩文), 셋째는 공령(功令), 넷째는 의학(醫學), 다섯째는 바둑, 여섯째는 글씨와 그림, 일곱째는 기억력, 여덟째는 담론(談論), 아홉째는 복택(福澤), 열째는 장수(長壽)이다. 처음에 중원(中原)에 유람할 때에 길에서 강남

사람을 만나 같이 한 수레를 타고 가는 사이에 그 말을 다 배워서 중국 도성의 사람들과 말하는데 붓이나 남의 통역을 빌지 않았다고 한다. 한 중국 사람과 사귀어 우정이 두텁더니, 그 뒤 몇 해에 그 삶은 죽고 그의 아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요계(遼薊) 사이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옛일을 회상하니 감회가 일어나서 가진 돈을 다 털어 그에게 주었다.

시문 약간 권이 있는데 운석(雲石) 조인영(趙寅永)이 출판하였다.

만덕

만덕은 제주 기생이다. 집안에 재산이 많았으며 한 쪽 눈이 겹눈동자[1]이었다. 정조 임금 임자년(壬子年)[2]에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만덕은 수천 석의 곡식과 수천 꿰미의 돈을 내어 한 고을의 백성을 진휼(賑恤)하여 살려내었다. 임금께서 그것을 매우 가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소원을 묻게 하였다. 대답하기를,

"저는 여자이며 천인이옵니다. 다른 소원은 없사옵고 단지 한 번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을 보고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침내 역참에 명하여 말을 내어 상경케 하고는 약원 내의녀(內醫女)[3]의 행수(行首)[4]로 귀속시켰다. 인하여 노자를 주어

---

1 겹눈동자 :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 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史記』「項羽本紀論」 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2 임자년(壬子年) : 1792년(정조 16).

3 내의녀(內醫女) :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는 의녀(醫女). (『朝鮮宣祖實錄』 33년 6월 辛丑條, 以備忘記傳于政院曰 側聞內醫女愛鍾 乃淫娼之甚者 本不可近

금강산에 가서 구경케 하였다.

회청대(懷淸臺)[5]를 을나(乙那)[6]의 고향에 지어 놓고
곡식 쌓은 것이 산처럼 높아 마곡 고을에 쌓았네.
네게 겹눈동자 내어주신 것 진실로 저버리지 않아
아침에 궁궐 보고 저녁에 금강산 구경하였네.

萬德

萬德 濟州妓也 家貲鉅萬 一雙眼重瞳 正宗壬子 州大　萬德出數千斛穀 數千緡錢 賑活一邑之民 上大嘉之 使問其所願 曰 萬德 女子賤人也 無他願 惟願一瞻天陛 一見金剛 遂命騎馹上京 屬之藥院內醫女行首 仍令廚傳 往遊金剛

於內殿之側)

4 행수(行首) : 동급의 품계나 신분을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의 우두머리.(『朝鮮太祖實錄 3』 2년 3월 丙辰條, 憲司上言 殿下曾下敎 奴婢爭訟 一皆永斷 刑曹都官不體上意 巧飾啓聞 欲起爭訟之端 請將知曹事張演議郎張羽 正郎趙謙佐郎尹莘等 皆罷職不敍 敎罷行首張演掌務尹莘老職)

5 회청대(懷淸臺) : 여회청대(女懷淸臺)의 고사(故事). 지금의 사천성 장수현(四川省長壽縣) 남쪽에 있는 대(臺)의 이름. 『史記』「貨殖傳」에 "파(巴)의 과부(寡婦) 청(淸)은, 그 선조가 단혈(丹穴)을 얻어, 그 이익을 여러 세대에 걸쳐 독점하였으며 집이 또한 어림할 수 없이 부유하였음. 청(淸)은 과부인데도, 잘 그 가업을 지키고, 용재(用財)를 자위(自衛)하여 침범을 보지 못하였음. 진시황이 정부(貞婦)라고 하여 객(客)으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어 주었다."고 하고 있음.(『漢書』「貨殖, 巴寡婦淸傳」巴寡婦淸 其先得丹穴 而擅其利數世 家亦不訾 淸寡婦也 能守其業 用財自衛 不見侵犯 秦始皇帝以爲貞婦而客之 爲築女懷淸臺)

6 을나(乙那) : 흔히 제주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고을나(高乙那) · 양을나(良乙那) · 부을나(夫乙那).

懷淸臺築乙那鄕 積粟山高馬谷量 賦汝重瞳眞不負 朝瞻玉階暮
金剛

11. 이희발(李羲發)의 「만덕전(萬德傳)」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 권8)

【해제】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학자 이희발(李羲發)의 시문집으로 1899년에 간행되었다. 문집 중 정조의 명을 받들어 쓴 「奉敎製進太學銀杯詩(봉교제진태학은배시)」 등 40여 편에 달하는 봉교제진(奉敎製進) 시와 조정에 있을 때의 생활상을 회상한 「억구유삼십운(憶舊遊三十韻)」 등은 다른 문집에서는 보기 드문 시편들로서 임금을 그리는 구절로 가득하다.

이 책은 모두 21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1과 권2에는 시(詩), 권3과 권4에는 소(疏), 권5과 권6에는 서(書), 권7에는 서(序)·기(記)·발(跋), 권8에는 전(傳)·설(說)·찬(贊)·명(銘)·전(箋)·교(敎)·율부(律賦)·부(賦), 권9에는 행장(行狀), 권10에는 행장(行狀)·유사(遺事)·묘갈명(墓碣銘)·묘지(墓誌)·광가(壙記), 권11에는 상량문(上樑文)·축문(祝文), 권12에는 제문(祭文)·애사(哀辭), 권13부터 권16까지는 중용(中庸) 강의(講義), 권17에는 규장각고식절목(奎章閣故寔節目), 권18에는 주자대전고식(朱子大典故寔), 권20과 권21은 부록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만덕전」은 권8 전(傳)에 수록되었는데, 제주도 기생 출신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휼한 만덕에 대하여 교명을 받들어 썼다고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다른 「만덕전」들과 그 내용이 비슷하나 도입 부분에서 탐라에 대한 지리·물산(物産)·민풍(民

風)·토속(土俗)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색다르다. 또한 끝부분에서도 만덕의 행적을 범씨(范氏)의 맥주(麥舟), 황공(黃公)의 조미(糶米), 용문(龍門)의 명산대천(名山大川), 영빈(瀕濱)의 황하(黃河)와 숭악(嵩嶽)에 비교할 만큼 천고(千古)에 듣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면서 일찍이 태사씨(太史氏)의 열전(列傳)에도 없는 기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자】

이희발(李羲發). 1768(영조 44)~1849년(헌종 1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천(永川), 초명은 영발(英發), 자는 우문(又文), 호는 운곡(雲谷)으로 의성 출신이다. 덕방(德枋)의 손자로, 의명(宜明)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파평 윤씨 윤덕은(尹德殷)의 딸이다. 정동필(鄭東弼)의 문인이다.

1795년(정조 19)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된 뒤 규장각의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발탁되었으며, 그 뒤 승진하여 순조 때 대사간을 지내고 헌종 초 승지가 되었다. 58세에 영해부사(寧海府使) 직에 있을 때 양사재(養士齋)를 지어 교화하니 백성들은 선정비를 세웠다. 특히 1847년(헌종 13)에는 병조참판으로 있으면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외침에 대비하였고, 언로를 개방하여 하의가 상달되도록 주선하는 것과 아울러 근검절약하기를 힘쓰도록 하였다. 그 뒤 계속하여 승진하여 지중추부사를 거쳐 기로소에 들어가 『홍재전서』 편찬에 기여하고 국정쇄신의 상소를 올렸으며, 1849년에는 형조판서가 되었으나 곧 병이 들어 치사(致仕)하였다. 시호는 희정(僖靖)이다.

만덕전(萬德傳)

이 아래로 규장각(奎章閣)[1]에서 강제(講製)할 때 교지(敎旨)[2]를 받들어 지어 올린 것이다.

내가 방장산(方丈山)[3]에 올라 동남쪽의 큰 바다를 굽어보니, 그 가운데 대개 탐라도(耽羅島)[4]가 있다고 한다. 섬의 땅은 지방(地方)[5]이 8백 리이니, 조화(造化)[6]가 융결(融結)[7]한 곳이요, 정독(亭毒)[8]하여 종륙(鍾毓)[9]한 것이다. 왕왕(往往)[10] 물화(物華)[11]와 인령

1 규장각(奎章閣) : 조선 정조(正祖) 원년(1776)에 설치하여 역대(歷代) 임금의 저술(著述)·필적(筆跡)·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보감(寶鑑) 및 정조의 어진(御眞)을 보관하던 관아.

2 교지(敎旨) :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

3 방장산(方丈山): 전설상의 바다에 있다는 신선이 사는 산. 여기서는 지리산(智異山)을 말함.

4 탐라도(耽羅島): 제주도를 말함.

5 지방(地方): 영역(領域). 땅의 사방 둘레.(『管子』「地勢」桀紂貴爲天子 富有四海 地方甚大)

6 조화(造化) : 천지 만물의 창조자. 자연(自然). 만물을 창조하고 화육(化育)함.

7 융결(融結) : 녹아서 풀어지고 엉겨서 뭉침.(元好問,「遊黃華山詩」輕明圓轉不相礙 變見融結誰爲雄)

8 정독(亭毒) : 길러서 자라게 함. 양육(養育)함. 정(亭)은 형(形)을 부여(賦與)하고 구별(區別)하는 것. 독(毒)은 질(質)을 형성하는 것. 또 정(亭)은 평(平)이며, 독(毒)은 독(篤)으로, 평(平)은 이루다의 뜻이고, 독(篤)은 숙성한다는 뜻이라고도 함.(『老子』長之育之 亭之毒之 養之覆之)

9 종륙(鍾毓) : 종영육수(鍾靈毓秀). 좋은 풍토가 훌륭한 인물을 탄생시킴을 이르는 말.(林則徐,「杭嘉湖三郡觀風告示」江海之所涵濡 膏壤之所鍾毓)

10 왕왕(往往) : 가끔. 때때로. 이따금.

(人靈)[12]이 많으니 그 토지(土地)는 메마르고, 그 백성은 오래 살고, 그곳에서는 귤(橘)과 유자(柚子)가 많이 나고, 그곳에서는 좋은 말이 생산되니, 민풍(民風)[13]과 토속(土俗)[14]은 의연(依然)하게 넓고 큰 기상(氣像)[15]이 있다.

만덕(萬德)이라는 자가 있으니 고을의 기생인데 나는 그 성씨(姓氏)를 잘 모르나 대개 이는 삼을나(三乙那)[16]의 유손(遺孫)일 것이다. 용모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고, 성품이 가무(歌舞)를 좋아하지 않고, 홍불(紅拂)[17]과 같이 아름답고 요야(妖冶)[18]한 작태(作態)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신에 촉(蜀)의 과부 청(淸)[19]과도 비교할

---

11 물화(物華) : 자연의 경치. 풍경. 여기서는 산물(産物)을 말함.

12 인령(人靈) : 인간. 사람.

13 민풍(民風) : 민간의 풍속. 민속(民俗).

14 토속(土俗) : 그 지방의 특유한 풍속이나 관습(慣習).

15 기상(氣像) : 도량. 타고난 성정(性情), 기질(氣質).

16 삼을나(三乙那) : 흔히 제주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고을나(高乙那) · 양을나(良乙那) · 부을나(夫乙那).

17 홍불(紅拂) : 수당(隋唐) 시대의 여협(女俠) 장출진(張出塵)을 이르는 말. 수 말의 권상(權相) 양소(楊素)의 시기(侍妓)로, 양소를 찾아온 이정(李靖)에게 반하여 함께 달아남. 뒤에는 영웅을 알아보는 부녀자의 전형으로 쓰임.(許時泉, 「寫風情」 他若有阮步兵覷人的眼兒 衛叔寶待人的面皮 我便效紅拂謹相隨)

18 요야(妖冶) : 요염하고 아리따움, 또는 그런 여자.

19 촉(蜀)의 과부 청(淸) : 여회청대(女懷淸臺)의 고사(故事). 지금의 사천성 장수현(四川省長壽縣) 남쪽에 있는 대(臺)의 이름. 『史記』「貨殖傳」에, "파(巴)의 과부(寡婦) 청(淸)은, 그 선조가 단혈(丹穴)을 얻어, 그 이익을 여러 세대에 걸쳐 독점하였으며 집이 또한 어림할 수 없이 부유하였음. 청(淸)은 과부인데도, 잘 그 가업을 지키고, 용재(用財)를 자위(自衛)하여 침범을 보지 못하였음. 진시황이 정부(貞婦)라고 하여 객(客)으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어 주었다."고 하고 있음.(『漢書』「貨殖, 巴寡婦淸傳」 巴寡婦淸 其先得丹穴 而擅其利數世 家亦不訾 淸寡婦也 能守其業 用財自衛 不見侵犯 秦始皇帝以爲貞婦而客之

만큼 의로운 일에 급히 나서고 베풀기를 좋아하였으니, 옛날의 소위(所謂) 여협(女俠)[20]이라는 자와 같은 부류가 아니겠는가?

지난 알봉(閼逢)[21]과 전몽(旃蒙)[22]의 해에, 고을에 큰 기근이 드니, 상(上)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아, 곧 대농(大農)[23]에게 명하여 내탕전(內帑錢)[24]을 내어서 목사(牧使)와 방백(方伯)[25]에게 명하여 호남과 영남의 속선(粟船)[26]을 전운(轉運)[27]하여 싣고 가서 먹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탐라 사람들은 주린 자는 배부르고 병든 자는 낫게 되었는데, 맹렬한 폭풍과 거센 파도 때문에 더러는 창고에 이어대는 것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만덕이 슬퍼하며 말하기를,

"백성들이 바야흐로 봇도랑과 골짜기에 처박혀 죽게 되었는데, 나라에서 부지런히 구휼(救恤)하시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내가 감히 가지고 있는 것을 바닥내지 않을까보냐? 우리 굶주린 인구를 구제하여, 우러러 임금님 뜻의 만분의 일이라도 분담해야 할 것이 아니겠

爲築女懷淸臺)

20 여협(女俠) : 의협심이 있는 걸출한 여자.

21 알봉(閼逢) : '알봉(閼逢)'은 십간(十干) 가운데 갑(甲)을 달리 이르는 말. 여기서는 갑인년(甲寅年)인 1794년(정조 18)을 말함.

22 전몽(旃蒙) : '전몽(旃蒙)'은 십간 가운데 을(乙)을 달리 이르는 말. 여기서는 을묘년(乙卯年)인 1795년(정조 19)을 말함.

23 대농(大農) : 고대에 농사일을 관장하던 벼슬인 대사농(大司農)·대농승(大農丞)·치속내사(治粟內史) 등의 총칭. 여기서는 호조판서를 말하는 듯.

24 내탕전(內帑錢) : 국고(國庫)의 돈.

25 방백(方伯) : 지방 장관. 관찰사(觀察使).

26 속선(粟船) : 곡식(穀食)을 운반하는 배.

27 전운(轉運) : 물건이나 짐 따위를 실어 나름. 운송함.

는가?”

곧 저축하였던 600곡(斛)[28]을 내놓아, 진휼(賑恤)하여 온 고을의 백성 열흘의 목숨을 연장시켰다. 고을에서 사실을 보고하니, 상(上)께서 이를 가상하다 하시고 고을에 명을 내리시어 그 공(功)에 대하여 소원대로 상을 주라고 하셨다. 만덕은 고개를 숙이고 사양하여 말하기를,

“부역(賦役)을 덜어 주시는 것도 원치 않사오며, 상을 받는 것도 원치 않사옵니다. 저는 천인이며, 해도(海島)[29]에 태어나서, 왕도(王都)의 궁궐이 얼마나 굉장한지 성곽 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지 못하였고, 또 들으니 금강산(金剛山)은 명승으로 천하에 제일이라 신선들이 살며, 중국 사람들도 보기를 소원한다고 하니, 이 몸이 상경하여 유람하고, 발이 명승지를 밟아 보는 것이 저의 오랜 소원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라고 명하셨다.

이 해 겨울 11월에 만덕이 바다를 건너 서울에 오니, 상(上)께서 매우 칭찬하시고 행수의녀(行首醫女)[30]에 충당하시고 이어 명년(明年)[31] 봄의 멋진 유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진휼청(賑恤廳)[32]의 돈

---

28 곡(斛) : 곡식의 단위. 1곡은 열 말.

29 해도(海島) :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

30 행수의녀(行首醫女) : 의녀(醫女) 가운데 우두머리.

31 명년(明年) : 다음해.

32 진휼청(賑恤廳) : 조선시대 진휼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처음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마다 임시로 구황청(救荒廳)을 설치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는데, 중종(中宗) 때에 진휼청을 설치하고 상설 기관으로 하였다가, 뒤에 상평창(常平倉)과 합하여 상진청(常賑廳)이라 하고, 평상시에는 곡가 조절 업무를, 흉년시에는 진휼 · 진대 업무를 맡게 하였으며,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다시 상

과 쌀을 주고, 연로(沿路)[33]에 신칙(申飭)[34]하여 필요한 양식을 주라고 명하시고, 또 신(臣) 등에게 명하시어 전기(傳記) 가운데 넣어 후인들에게 보이라고 하셨으니, 대개 특별한 은전(恩典)이었다.

대개 베풀기를 좋아하고 궁핍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남자도 어려운 일이며, 명승을 멋지게 관람하는 것도 또한 현달(賢達)[35]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것인데, 범씨(范氏)의 맥주(麥舟)[36], 황공(黃公)의 조미(糶米), 용문(龍門)[37]의 명산대천(名山大川), 영빈(潁濱)[38]의 황하(黃河)·숭악(嵩嶽)[39]은 천고(千古)에 듣기 어려운 것인데, 만덕은 해도(海島)의 창기(倡妓)라는 천한 신분으로 능히 이것을 겸하여 가졌으니, 모르거니와 태사씨(太史氏)[40]의 열전(列傳)에도 이러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는 전기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드디어 이 전기를 지었다.

평창과 진휼청을 분리시킴. 광해군 즉위년(1608)에 선혜청(宣惠廳)이 설치되자, 진휼청은 다시 상평창과 합하였다가, 현종 2년(1661)에 다시 분리되어 비변사(備邊司)의 관리 아래 두었고, 숙종 12년(1686)에 선혜청에 이속되어오다가 갑오경장 때에 폐지됨.

33 연로(沿路) : 큰 길과 인접한 지역.

34 신칙(申飭) : 주의하여 바르고 엄숙하게 함. 타이르고 경계함.

35 현달(賢達) : 현명하여 사물의 이치에 통달함. 재덕과 성망(聲望)이 있는 사람.

36 맥주(麥舟) : 보리를 운반하는 배. 송(宋) 범중엄(范仲淹)의 아들 요부(堯夫)가 배로 보리를 운반하는 도중에 단양(丹陽)에서 만난 석만경(石曼卿)으로부터 장사지낼 비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리를 실은 배를 부의로 준 고사.

37 용문(龍門) : 사마천(司馬遷)이 용문(龍門)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

38 영빈(潁濱) : 소철(蘇轍)의 만년(晩年)의 호(號)

39 숭악(嵩嶽) : 오악(五嶽)의 하나인 중악(中岳).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 북쪽에 있음.

40 태사씨(太史氏) : 한(漢)의 사마천(司馬遷).

萬德傳 此下 奎章閣講製時 奉敎製進

余登方丈山 俯瞰東南大海 其中盖有耽羅島云 島之地 地方八百里 造化之所融結 亭毒之所鍾毓 往往多物華人靈 厥土磽 厥民壽 厥包橘柚 厥産騏騾 民風土俗 依然有鴻龐氣像焉 有萬德者 州妓也 余未詳其姓氏 盖是三乙那之遺裔也 貌不揚 性不喜歌舞 不作紅拂佳冶之態 而貲擬蜀淸 有急義好施 與古所謂女俠者流歟 粵在閼逢旃蒙之歲 州大饑 上曰 咨乃命大農 發內帑錢 申命牧伯 移湖嶺粟船 載往哺之 於是羅之人 飢者飽 病者蘇 而颶風鯨濤 或未免繼廩失期 萬德慨然曰 民方溝壑 而國家之勤恤若是 余敢不罄吾所有 濟我飢口 以仰體聖意之萬一乎 乃出所儲六百斛 以賑之 以延一州民旬日之命 州以事聞 上嘉之命下于州 賞其功惟所願 萬德稽首謝曰 蠲役非願也 受賞非願也 妾賤人也 生在海島 不見王都宮闕之壯 城郭人民之富 又聞金剛 以名勝甲天下 仙子之所居 華人之所願見也 身遊上京 足躡名區 是妾夙昔之願也 命許之 是年冬十一月 萬德涉海至京師 上亟加褒異 俾充行首醫女 仍語明春壯遊 命賑廳給錢米 飭沿路 賜資糧 而又命臣等 立傳以示後 盖殊典也 夫喜施濟窮 丈夫之所難 壯觀名勝 亦賢達之未易致者 如范氏之麥舟 黃公之糶米 龍門之名山大川 灞濱之黃河嵩嶽 千古罕聞 而萬德 以海島倡妓之賤 能兼而有之 則未知太史氏列傳 亦有是否 此不可以無傳 遂爲之傳

12. 김희락(金熙洛)의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리다(奉敎製進萬德傳)」

(『고식(故寔)』)

【해제】

『고식』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김희락(金熙洛)의 시문집으로 5권 3책으로 되어 있다. 1878년(고종 15) 그의 손자 철수(喆銖)가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총서(總序)가 있고 권말에 권여하(權泳夏)와 철수의 발문이 있다.

권1에는 「주자대전강의십조차자(朱子大全講義十條箚子)」·「어비십조별유(御批十條別諭)」·「국조고사강의(國朝故事講義)」, 권2에는 「중용강의(中庸講義)」·「어제조문신희락대(御製條問臣熙洛對)」, 권3에는 설(說)·제(題)·책(策), 권4에는 시(詩)·율부(律賦)·찬(贊)·전문(箋文)·의(義)·서(序)·전(傳)·상량문(上樑文), 권5에는 전교(傳敎)·행록(行錄)·잡저(雜著)·서(書)·제문(祭文), 부록에는 행장(行狀)·만뢰(挽誄) 등이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만덕 이야기는 권4의 전에 「봉교제진만덕전(奉敎製進萬德傳)」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이 작품도 이희발의 「만덕전」처럼 처음 도입 부분에서 탐라의 물산·풍속·형승(形勝) 등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남정(男丁) 하나에 여인이 셋 꼴로 여다(女多)의 섬임과 더불어 섬의 풍모가 항산(恒山)이나 태산(泰山)과 비슷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끝부분에서도 중생에게 자비를 베푼 여가섭(女迦葉)에 비유하여 만덕의 행적을 미화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작자】

김희락(金熙洛). 1761(영조 37)~1803년(순조 3).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의성이며, 자는 숙명(淑明)이다. 아버지는 사후에 이조참의로 추증되었던 두동(斗東)이며, 어머니는 전주 유씨로 세원(世源)의 딸이다. 이상정(李象靖)의 문인이다.

1792년(정조 16) 사마시에 합격, 몇 달 뒤에 도산(陶山) 응제(應製)에서 자원하였다. 1794년 규장각 강제문신(講製文臣)으로 뽑혀 그의 족형인 희주(熙周)와 함께 궁중을 출입하며 여러 가지 과제(課製)에서 자주 장원하였다. 1794년에서 1800년 사이에 삼조(三曹)의 낭관(郎官)과 사헌부지평 · 사간원정언을 지내는 동안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다. 말년에는 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흥양현감(興陽縣監)을 자원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문장과 학식이 뛰어나 정조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았고 많은 강제문과 응제문을 지어 올렸으며, 『해동인물고(海東人物攷)』·『홍재전서(弘齋全書)』 등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교지(敎旨)[1]를 받들어 만덕전(萬德傳)을 지어 올리다

탐라(耽羅)는 바다의 섬이니 영주(瀛洲)라고도 부른다. 산에는 짐승이 많고 땅에는 풀이 좋아서 그 백성은 크게 번성하고 그 풍속은 남정(男丁)[2] 하나에 여인이 셋 꼴로 많아서 왕왕(往往) 항산(恒山)[3]

1 교지(敎旨) :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 · 관작 · 자격 · 시호 · 토지 · 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

2 남정(男丁) : 장정이 되었거나 결혼한 남자를 여자의 입장에서 일컫는 말.

3 항산(恒山) : 중국의 오악(五嶽) 중의 북악(北嶽). 하북성(河北省) 곡양현(曲陽縣)

과 태산(泰山)[4]의 풍모(風貌)가 있다.

갑인년(甲寅年)[5]에 크게 흉년이 들자 조정에서는 배로 곡식을 보내어 먹여 주었는데, 이듬해인 을묘년(乙卯年)[6]에 또 기근(饑饉)이 드니 왕께서는 내탕전(內帑錢)[7] 일만 냥(一萬兩)을 내어, 호남의 곡식을 사고 영남의 쌀을 전운(轉運)[8]하라고 목사(牧使)와 방백(方伯)[9]에게 신칙(申飭)[10]하며 명하셨다. 송(宋) 나라 조정의 고사(故事)를 원용하여 문첩(文牒)[11]을 주고 조곡(租穀)[12]을 거두어 2, 3만 곡(斛)[13]을 얻었다. 탐라 사람으로 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넉넉하지 못하여 풀잎의 끝과 나무 열매를 먹었고 한라산(漢拏山)에는 말이 거의 없어졌다.

고을의 기생으로 만덕(萬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 어느 집에서 났다. 용모는 날리지 못하였고 노래나 춤도 잘 못하였으나 성격은 활달하고 협기(俠氣)가 있었으며, 재물(財物)은 촉(蜀) 나라 청(淸)[14]에게 비교되었다.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

의 서북쪽에 있음.

4 태산(泰山) : 오악(五嶽)의 하나로, 산동성(山東省) 중부에 있으며 주봉(主峰)은 옥황정(玉皇頂). 고대에 제왕이 봉선(封禪)하던 산.

5 갑인년(甲寅年) : 1794년(정조 18).

6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7 내탕전(內帑錢) : 국고(國庫)의 돈.

8 전운(轉運) : 물건이나 짐 따위를 실어 나름. 운송함.

9 방백(方伯) : 지방 장관. 관찰사(觀察使).

10 신칙(申飭) : 주의하여 바르고 엄숙하게 함. 타이르고 경계함.

11 문첩(文牒) : 공문서. 문서.

12 조곡(租穀) : 조세로 바치는 쌀.(『後漢書』「梁商傳」每有飢饉 輒載租穀於城門賑與貧餒)

13 곡(斛) : 곡식의 단위. 1곡은 열 말.

"탐라는 서울에서의 거리가 백사(百舍)[15]이며, 바다에 둘러싸여 해마다 흉년이 드니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 성상(聖上)께서 자리에 편하게 앉지도 못하시고 근심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비록 천(賤)하나 그래도 조화옹(造化翁)이 만든 물건이니 임금님 땅에 살며, 임금님 땅에서 먹으니, 내가 외로운 섬 백성들을 먹이지 아니하면, 자손에 대한 대책이 없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600곡(斛)을 내어서 진휼(賑恤)하니 탐라의 백성들이 10일을 연명(延命)[16]할 수 있었다. 왕이 가상히 여기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니, 만덕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니, 관대하게 부역을 면해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상을 받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은(聖恩)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한다면, 방기(邦畿)[17] 천 리의 문물도회(文物都會)와 금강산(金剛山) 일만 이천 봉[18]을 구

---

14 촉(蜀)나라 청(淸) : 여회청대(女懷淸臺)의 고사(故事). 지금의 사천성 장수현(四川省長壽縣) 남쪽에 있는 대(臺)의 이름. 『史記』「貨殖傳」에, "파(巴)의 과부(寡婦) 청(淸)은, 그 선조가 단혈(丹穴)을 얻어, 그 이익을 여러 세대에 걸쳐 독점하였으며 집이 또한 어림할 수 없이 부유하였음. 청(淸)은 과부인데도, 잘 그 가업을 지키고, 용재(用財)를 자위(自衛)하여 침범을 보지 못하였음. 진시황이 정부(貞婦)라고 하여 객(客)으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어 주었다." 고 하고 있음.(『漢書』「貨殖, 巴寡婦淸傳」 巴寡婦淸 其先得丹穴 而擅其利數世 家亦不訾 淸寡婦也 能守其業 用財自衛 不見侵犯 秦始皇帝以爲貞婦而客之 爲築女懷淸臺)

15 백사(百舍) : 3,000리. 사(舍)는 거리(距離)의 단위. 1 사(舍)는 30 리(里).

16 연명(延命) :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감.

17 방기(邦畿) : 왕성(王城) 근처의 땅. 왕성을 중심으로 한 사방 1,000리 이내의 지역. 국가.

경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도 이 나라에 나기를 원했습니다. 감히 청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굳이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께서 이를 허락하시고, 물러서 용안(龍顔)[19]을 뵙도록 하시고, 곧 행수의녀(行首醫女)[20]에 충당하고 금강산에 재송(齎送)[21]하게 하셨다. 규장각(奎章閣)[22]의 글 잘하는 신하에게 명하여 전기(傳記)를 짓도록 하여 이를 호강스럽게 하셨다.

태사공(太史公)[23]이 말하기를, 황승사(黃承事)가 만 곡(斛)을 진휼(賑恤)하여 자부(紫府)[24]의 진인(眞人)[25]이 상좌(上座)에 모셨는데, 만덕은 한 여자로서 만 명의 굶주린 사람을 살리고, 서울 구경을 하고, 봉래산(蓬萊山)[26]에 올랐으니, 어찌 여가섭(女迦葉)[27]과 더불

---

18 일만 이천 봉 : 실제 금강산의 봉우리가 일만 이천 봉우리인 것은 아니며, 일만 이천 봉은 불경에서 유래된 말로 그만큼 봉우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 말임.

19 용안(龍顔) : 임금의 얼굴. 또는 임금을 말함.

20 행수의녀(行首醫女) : 의녀(醫女) 가운데 우두머리.

21 재송(齎送) : 주어서 보냄.(『漢書』「匈奴傳上」而漢俗屯戍從軍當發者 其親豈不自奪溫厚肥美 齎送飮食行子乎)

22 규장각(奎章閣) : 조선 정조(正祖) 원년(1776)에 설치하여 역대(歷代) 임금의 저술(著述)·필적(筆跡)·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보감(寶鑑) 및 정조의 어진(御眞)을 보관하던 관아.

23 태사공(太史公) : 한(漢)의 사마천(司馬遷)

24 자부(紫府) : 도가(道家)에서 신선이 사는 곳을 이르는 말.(『抱朴子』「祛惑」及到天上 先過紫府 金牀玉几)

25 진인(眞人) : 도교에서 본성(本性)을 보존하여 기른 사람. 또는 수도하여 도리를 깨달은 사람.

26 봉래산(蓬萊山) : 신선이 산다고 하는 신령한 산. 여름철의 금강산의 다른 이름.

27 여가섭(女迦葉) : 여자 가섭(迦葉). '가섭'은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의 한 사람. 석가의 뒤를 이어 불법을 전함. 선종(禪宗)에서는 제1대조로 받들고 있음.

어 놀며 중생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티끌이 가득한 절구 속에서 싸우며, 작은 이해를 비교하며 머리 하나를 내놓지 못하며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면서 이 여인을 비웃을 것인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급히 달려가는 높은 의기(義氣)는 비록 협사전(俠士傳)[28] 가운데 넣어 둔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奉敎製進萬德傳

耽羅在海島 稱瀛洲 山彌畜地靈草 厥民脈榛 厥俗一男三女 往往有恒岱風 歲甲寅大侵 朝廷 船粟往哺 粵明年乙卯又饑 王出內帑錢一萬 貿湖南穀 轉嶺右米 申命牧伯 用宋朝故事 給牒收租 得三二萬斛 羅人待以命者 萬計猶不贍 就食草頭木實 挈山幾舞馬 州妓有萬德者 生某里某第 貌不揚 短歌舞 性濶狹 貲擬蜀淸 喟曰 羅距京百舍 海環年 民將劉 聖上側席憂勤 吾雖賤猶化中物 居王土 食王土 吾弗粟民獨島 子孫計罄 其有出賑六百斛 羅民得延一旬 王嘉之 惟其願聽 萬德曰 否否 此其常 貰免非所願 爵賞非所願 聖恩如弗可負 邦畿千里 文物都會 金剛萬二千峯 華人亦願生 不敢請固所願 王許之 召接賜顔 直充行首醫女 齎送金剛 命奎閣詞臣 作傳以侈之

太史公曰 黃承事 賑萬斛 紫府眞人 延之上座 萬德 以一女 活萬飢 觀京師 陟蓬萊 豈與女迦葉遊 慈悲衆生乎 世人役塵臼 較

28 협사전(俠士傳) : 의협심(義俠心)이 있는 사람들의 전기(傳記).

錙銖不能出一頭 行一步得無爲 此女所笑耶 急人高義 雖置俠士傳中 無愧色矣

13. 이면승(李勉昇)의 「만덕전(萬德傳)」
(『감은편(感恩編)』 권3)

【해제】

『감은편』은 이면승이 정조 대에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활동하는 동안 지은 글을 수록한 책으로 1책의 필사본이다. 수록 내용은 대부분이 이면승이 1800년까지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내용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책이 만들어진 시기는 180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책은 「감은편의례」로 시작하여 「은갱록(銀賡錄)」·「은사록(恩賜錄)」·「은과록(恩課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인 「은갱록」은 어제시에 이면승이 갱운한 것을 기록한 내용으로 그가 초계문신으로 선발된 이듬해인 1795년(정조 19) 3월 7일의 기록으로 시작하여 1796년(정조 20) 11월 29일의 어제시에 갱운한 것을 끝으로 하고 있다. 총 10편의 어제와 그에 이은 10편의 갱운이 수록되었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인 「은사록」은 1783년(정조 7)부터 1800년(정조 24) 사이에 임금에게 하사받은 물건의 품목과 날짜를 적어 놓은 것으로 그 품목을 받은 연월일과 세부품목 등을 기록해 놓았다.

책의 세 번째 부분 「은과록」은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는 동안 강제한 것을 모은 것이다. 수록된 것으로는 오언고시·칠언고시·오언절구·칠언절구·오언율시·칠언율시·오언배율·칠언배율 등의 시와 가(歌)·사(詞)·치사(致詞)·부(賦)·부율(賦律)·표(表)·전(箋)·의(擬)·상량문(上樑文)·계(啓)·교서(敎書)·명(銘)·혼례

(婚禮)·전(傳)·기(記)·서(序)·설(說)·의(義)·책(策)·문(問) 등 문체 전반에 걸쳐 여러 종류의 글이 있다.

이 중 「만덕전」은 '전(傳)'에 수록되었다. 이 「만덕전」의 내용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만덕을 우리나라 이름난 기생들과 비교하고 있는 점이다. 술 잘 마시기로 유명한 단산(丹山)의 두향(杜香), 시 잘 짓기로 이름난 함관(咸關)의 가련(可憐)과 밀양(密陽)의 운심(雲心), 칼춤으로 유명한 장성(長城)의 노아(蘆兒), 노래로 유명한 연(然), 왜놈을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음으로써 그 절개와 의지가 밝게 빛나는 진양(晉陽)의 논개(論介) 등이 그들이다. 그런가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덕의 삶을 재산을 풀어 백성을 구제한 유응지(劉凝之), 유람을 즐긴 소자유(蘇子由), 명산에 올랐던 사영운(謝靈運)에 비유하여 일개 천한 기생으로서 세 가지 아름다움을 모두 다 한 몸에 지닌 여협(女俠)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작자】

이면승(李勉昇). 1766(영조 42)~1835년(헌종 1).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계래(季來)이다. 성순(性淳)의 아들이며, 판서 면긍(勉兢)의 아우이다.

1794년(정조 18) 진사로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98년 홍문관에서 처음 벼슬을 한 뒤 사헌부지평이 되었다. 이면승은 초계문신(抄啓文臣) 갑인선(甲寅選, 1794) 22인 중의 한 사람으로 정조가 서거하던 해인 1800년까지 규장각의 초계문신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초계문신은 참상(參上)·참하(參下)의 당하문신(堂下文臣) 중에서 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성균관(成均館)의 박사 추천이 된 사람 중 37세 이하의 사람을 의정부에서 뽑아 규장각에서 일종의 위탁교육을 시키다가 40세가 되면 면허되도록 하는 제도이

다. 1808년에는 전라도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전라도 각 지역 수령들의 업무수행 상황을 조사, 국가재정의 핵심적 문제였던 환곡 · 민고(民庫) · 군정(軍政) 등 지방행정업무의 퇴폐상을 극론하여, 그 결과 전라지역의 환곡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그 뒤 우부승지로 있다가 1815년 2월에는 황해도관찰사, 1818년에는 대사성 · 대사간, 1820년에는 함경도관찰사, 1825년에는 사헌 · 형조판서를 지내었고, 같은 해 11월 동지사로서 부사 이석우(李錫祐), 서장관 박종학(朴宗學) 등을 대동하고 연경에 다녀오기도 했다. 1829년에는 경상도관찰사가 되었고, 그 뒤 이조판서 · 공조판서 · 대사헌 · 예문관 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만덕전(萬德傳)

만덕(萬德)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라(耽羅)의 기생으로서 성은 김씨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사(公私) 간에 천한 사람은 성씨도 쓰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냥 만덕이라는 이름만 불렀다. 본래는 양가집의 딸이었으나 십여 세가 되었을 때 부모를 여의고 창가(娼家)[1]에 고용되었다. 자색(姿色)[2]이 있어 부(府)에 속한 기생으로 뽑혔고 기예(技藝)[3]를 배울 때 무엇이나 다 잘했다. 또한 성격이 활달하여 장한 기상이 있었다. 배를 만들고 다스리는 일에 능통하여 다른 곳의 쌀과 양곡을 사다가 점포를 차려 놓고 판매를 한 덕에 삿갓과 말갈기〔騣〕[4]가 쌓여 돈이 많았고 풍족하였다. 을묘년(乙卯年)[5]에 섬에 심각한

1 창가(娼家) : 창기(娼妓)의 집. 기루(妓樓).
2 자색(姿色) : 여자의 얼굴과 맵시.
3 기예(技藝) : 기술에 관한 재주와 솜씨.

흉년이 닥쳐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자 임금님이 그들을 가엽게 여겨 내탕전(內帑錢)[6]의 돈을 풀어 연해(沿海)[7]에서 쌀을 사다가 구제해 주었다. 이에 만덕이 탄식하여 하는 말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나의 동포이거늘 하물며 한 섬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랴? 또한 재물이란 몸 밖의 물건이라 벌 때와 쓸 때를 알아야 하거늘 내 어찌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守錢虜)[8]가 되어 내 눈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고 구제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돈을 풀어 쌀을 사다가 수천 명의 목숨을 살렸다. 관원이 이 일을 상소하자 임금님께서 그 공덕을 치하하시고 부역을 면제하라 명하시니 그녀는 분에 넘치는 일이라 사양하고, 상을 내리려 해도 사양하는 바람에 혹시 무슨 특별한 요구라도 있나 하여 그녀가 굳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도록 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첩의 몸이 비록 천하지만 역시 우리 임금님의 적자(赤子)[9]이옵니다. 적자로서 부모님의 용안(龍顔)[10]을 뵙지 않아서야 될 일이옵니까? 중국 사람이 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려 땅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 번 구경하는 것이 평생소원이다' 라고 할 만큼 금강산의 절경이 천하에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제가 행복하게도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나이가 쉰하고 여덟 살을 더 먹은 늙은이가 마지막까지 금강산 구경을 못해보고 죽었다면 중국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

---

4 말갈기〔騣〕 : 말의 목덜미에서 등까지 난 긴 털.
5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6 내탕전(內帑錢) : 국고(國庫)의 돈.
7 연해(沿海) :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땅
8 수전노(守錢虜) :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인색한 사람.
9 적자(赤子) : 백성.
10 용안(龍顔) : 임금님의 얼굴.

습니까? 서울에 있는 궁궐들의 장엄한 모습을 구경하고 새의 깃과 짐승들의 꼬리로 장식한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본 다음 동쪽으로 일만 이천 봉[11]을 두루 밟아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동네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낼 수 있다면 첩의 소원은 풀릴 것이옵니다."
라고 하였다.

나라의 법에 탐라의 여인들은 바다를 건널 수 없었다. 이것은 마치 암말을 가둬 놓고 못 나가게 하는 것과도 같았다. 만덕의 이 소원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감히 마음대로 행할 수 없었다. 임금님께서 그 말을 기특하게 여기시어 그녀의 소원을 허락하셨다.

이에 말린 양식을 마련하고 말도 갖추고 시종도 딸려서 바다를 건너게 했다. 북쪽으로 유람을 하는 도중 서울에 이르러서는 관저(官邸)[12]에 묵었는데 재상 같은 대신들이 임금의 뜻에 따라 진휼청(賑恤廳)[13]에 명하여 쌀과 돈을 넉넉히 주어 그녀로 하여금 궁색함이 없도록 잘 우대해 주었으며 그녀가 다녀 갈 연도(沿道)[14]의 관아에

---

11 일만 이천 봉 : 실제 금강산의 봉우리가 일만 이천 봉우리인 것은 아니며, 일만 이천 봉은 불경에서 유래된 말로 그만큼 봉우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 말임.

12 관저(官邸) : 고급 관리에게 제공되는 관사(館舍).

13 진휼청(賑恤廳) : 조선시대 진휼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처음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마다 임시로 구황청(救荒廳)을 설치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는데, 중종(中宗) 때에 진휼청을 설치하고 상설 기관으로 하였다가, 뒤에 상평창(常平倉)과 합하여 상진청(常賑廳)이라 하고, 평상시에는 곡가 조절 업무를, 흉년시에는 진휼 · 진대 업무를 맡게 하였으며,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다시 상평창과 진휼청을 분리시킴. 광해군 즉위년(1608)에 선혜청(宣惠廳)이 설치되자, 진휼청은 다시 상평창과 합하였다가, 현종 2년(1661)에 다시 분리되어 비변사(備邊司)의 관리 아래 두었고, 숙종 12년(1686)에 선혜청에 이속되어오다가 갑오경장 때에 폐지됨.

14 연도(沿道) : 큰 길과 인접한 지역.

서는 말을 대주고 식량을 공급하도록 했으며, 또한 특별히 여의수(女醫首)[15]를 삼아 차비문(差備門)[16]에 대령케 하였다. 기생으로 뽑힌 자 가운데서 영화를 누렸거나 자질이 뛰어난 자 외에도 사씨(史氏)[17]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녀들 중 한 가지가 빼어나 이름을 날린 자가 많다. 술 잘 마시기로는 단산(丹山)[18]의 두향(杜香)이 있고, 시 잘 짓기로는 함관(咸關)[19]의 가련(可憐)과 밀양(密陽)[20]의 운심(雲心)이 있고, 칼춤으로는 장성(長城)[21]의 노아(蘆兒)가 있고, 노래로는 연(然)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나 모두 다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다 할 만한 인물이 있는가? 하지만 유독 진양(晉陽)[22]의 논개(論介)만큼은 왜놈의 우두머리가 하도 꼴사납게 놀자 거짓으로 순응하는 척하여 그자의 환심을 사고, 또한 그자와 같이 춤을 추다가 몸을 허공으로 날리면서 왜놈을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으니 그 절개와 의지가 밝게 빛나기에 지금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을 금할 수 없다.

---

15 여의수(女醫首) : 조선시대 여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여자 의원 가운데 우두머리.

16 차비문(差備門) : 임금이 거처하는 편전(便殿)의 앞문을 이르는 말.(『朝鮮世祖實錄』 36 11년 8월 庚子條, 旣而政府政院堂上 就差備門外啓 震知張米豆 潛授僕夫 臣等未及知之 稽緩啓達 請待罪)

17 사씨(史氏) : 사관(史官). 사가(史家).

18 단산(丹山) : 충청북도 단양.

19 함관(咸關) : 함관령(咸關嶺). 함경도 함주군(咸州郡) 덕산면(德山面)과 홍원군(洪原郡) 운학면(雲鶴面) 사이에 있는 고개. 조선 태조가 오랑캐 나하추(納哈出)를 크게 무찌른 곳.

20 밀양(密陽) : 경상남도 밀양.

21 장성(長城) : 전라남도 장성.

22 진양(晉陽) : 경상남도 진주.

그러나 만덕이와 같은 여인은 태평 세대에 태어났으므로 그 기개와 의지를 펼 데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보여 준 뜻을 감안하면 험난한 삶에서도 어디에 구애됨이 없이 오히려 지분(脂粉)[23]의 따분한 모습을 말끔히 씻어버렸으니 논개와 처지를 바꾸어 놓는다 해도 그 아름다움에 아무런 손색이 없지 않을까? 재산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함이 유응지(劉凝之)[24]가 돈을 흩뜨릴 때와도 같았고, 바다를 건너 서울을 마음껏 구경했으니 소자유(蘇子由)[25]의 유람과 같다. 이어서 봉래(蓬萊)[26]로 들어가 사영운(謝靈運)[27]처럼 명산을 올랐으니 일개 천한 기생으로서 세 가지 아름다움을 모두 다 한 몸에 지녔기에 이 어찌 옛사람들이 숭상하던 이른바 여협(女俠)[28]이 아니리오? 위대하도다.

---

23 지분(脂粉) : 연지와 분. 여성. 부녀.

24 유응지(劉凝之) : 만조 송(南朝宋) 지강(枝江) 사람. 자는 지안(志安). 아명(兒名)은 장년(長年). 조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처자를 데리고 형산(衡山)에서 은거함.(『宋書 93』, 『南史 75』)

25 소자유(蘇子由) : 송(宋) 소철(蘇轍)의 자에 성을 붙여 이르는 말. 고문에 뛰어나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힘.

26 봉래(蓬萊) : 봉래산(蓬萊山). 신선이 산다고 하는 신령한 산. 여름철의 금강산의 딴 이름.

27 사영운(謝靈運) : 남조 송(南朝宋) 진군(陳君) 양하(陽夏) 사람. 일명 객아(客兒)·사객(謝客)·사강락(謝康樂). 벼슬은 영가 태수(永嘉太守)·비서감(秘書監)·임천 내사(臨川內史). 연(玄)의 손자로 문벌 귀족의 집안에 태어났으나, 종숙 혼(混)이 송 무제(宋武帝)에게 죽임을 당한 뒤 불우하게 살다 모반죄를 뒤집어쓰고 피살됨. 시인으로 유명하여 안연지(顔延之)와 함께 안사(顔事)라 불리었는데, 정치적 불만을 산수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중국 문학에 산수시의 새로운 길을 열었음. 명대(明代)에 편집한 『사강락집(謝康樂集)』이 전함.(『宋書 67』, 『南史 19』)

28 여협(女俠) : 의협심이 있는 걸출한 여자.

萬德傳

萬德者 耽羅妓 金姓也 我國公私 賤不用姓 故以萬德名 本以良家女 十余歲失怙恃爲娼家傭賃 有姿色 仍選隸府妓 學技藝盡善性 又不拘 有丈夫氣 善治産造船 而貿遷米 設舖而販賣 駿積貲 頗饒 乙卯歲 大侵島民飢 上憫之發內帑錢 輸沿海粟以賑之 萬德喟然曰 四海皆吾同 況一島乎 且財外物也 聚散有時 吾肯爲守錢虜 立視飢且死而不之恤乎 於是傾貲易米 所全活者數千人 守臣以聞 上嘉其功 命贖役以非分辭 欲賞之又辭 蓋非有意於希覬者 强其所欲 妾身雖賤 亦吾王之赤子也 赤子而不見父母之顔可乎 中州人 詩曰 願生高麗國一見金剛山 然則金剛之勝聞天下矣 妾幸生於是國 年今五十有八老且死矣 而終未之見得不爲中州人笑乎 覽城闕之壯 瞻羽旄旌之美 東躡萬二千峰歸詑鄉里 則妾之願畢矣 國典耽羅女毋得越海 如牝馬之不許出萬德之有是願 蓋不敢 自由也 奇其言而許之 迺備糗糧具馬僕渡海 而北旅寓京邸 相臣以啓命賑恤廳 優給米錢俾無窘待 其東遊使道臣給馬助糧 又特置女醫首 待令於差備 於選妓中所處榮 而所資厚外 史氏曰 我國娼妓以一節稱者多矣 於酒有丹山之杜香 於詩有咸關之可憐 密陽之雲心 以劍名長城之蘆兒 以歌名然皆不出綺羅圈套中何足道哉 獨晉陽論介 當倭酋猖獗之日僞服而得其歡 與之舞翻身抱墜崖死 節義炳烺 至今有凜人毛髮者 如萬德者 生升平之世 無所施其氣義 然觀其意 汎濫不局洗却脂粉態色使 與論介易地 則何遽讓其美哉 於戲捐財賑 民劉凝之之散錢也 涉大海遊京師 蘇子由之盡觀也 遂入蓬萊謝靈運之登山也 一賤妓而三美具 豈古所謂女俠者耶 偉哉

14. 이가환(李家煥)의 「만덕을 탐라로 보내니 돌아갔다(送萬德還耽羅)」 (『금대시문초(錦帶詩文鈔)』)

【해제】

『금대시문초』는 조선 후기 학가 이가환(李家煥)의 시문집이다. 크게 상하로 나누어지는데, 상에는 고시(古詩)·근체시(近體詩)·육언(六言), 하에는 소(疏)·서(序)·기(記)·묘지(墓誌)·갈명(碣銘)·행장(行狀)·전(傳)·찬(贊)·명(銘)·제발(題跋)·제문(祭文)이 수록되었다.

이 중 만덕에 대한 이야기는 『금대시문초』 상권의 '고시'에 「송만덕환탐라(送萬德還耽羅)」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이 글은 크게 만덕의 행적을 기술한 전반부와 칠언고시로 노래한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작자】

이가환(李家煥). 1742(영조 18)~1801년(순조 1).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본관은 여흥(驪興)으로, 자는 정조(廷藻)이고 호는 금대(錦帶)·정헌(貞軒)이다. 익(瀷)의 존손으로 용휴(用休)의 아들이며, 천주교인 이승훈(李承薰)의 외숙이다. 학문적 교우로는 정약용(丁若鏞)·이벽(李檗)·권철신(權哲身) 등 천주교 신자가 많다.

1771년(영조 47)에 진사가 되고, 1777년(정조 1) 증광문과 을과로 급제하여, 1780년에 비인현감이 되었다. 1784년에 생질인 이승훈이 북경에서 돌아오고, 동료학자들이 서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는 천

주교에 대한 학문상의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이벽과 논쟁을 벌이다가 도리어 설득되어 천주교인이 되었다. 그 뒤 광주부윤(廣州府尹)·대사성·개성유수·형조판서·충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천주교를 연구하다 1801년 이승훈·권철신 등과 함께 옥사로 순교하였다.

정조로부터 '정학사(貞學士)'라 호칭될 만큼 대학자였으며, 특히 천문학과 수학에 정통하였다. 저서로는 『금대유고』가 있다.

만덕(萬德)을 보내니 탐라(耽羅)로 돌아갔다

만덕(萬德)은 탐라(耽羅)의 과부니, 을묘년(乙卯年)[1] 큰 기근에 쌀을 사들여서 주린 사람들을 진휼(賑恤)[2]하였다. 주목(州牧)[3]이 아뢰니 지존(至尊)[4]께서 얼굴빛을 변화시키고 만덕의 원하는 바를 물어보라 하였다. 이에 만덕은 하고 싶은 것은 없으나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하니, 드디어 여의(女醫)[5]에 녹명(錄名)[6]하고 역체(驛遞)[7]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 그의 소원을 이루게 하였고, 진귀한 것을 성대히 나누어 주니 도로에 빛을 발하면서 그 향리(鄕里)[8]로 돌

1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2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함.
3 주목(州牧) : 주(州)의 장관. 여기서는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말함.
4 지존(至尊) : 제왕의 지위. 여기서는 임금을 말함.
5 여의(女醫) : 조선시대 여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여자 의원.(『經國大典3』「禮典, 選上」女醫七十人 每三年並以諸邑婢年少者選上)
6 녹명(錄名) : 이름을 기재함.
7 역체(驛遞) : 역참(驛站)에서 공문(公文)을 넘겨 주고받는 일. 또는 공무(公務)를 띤 사람을 역에서 역으로 말을 갈아 보내는 일.

아갔다.

아, 탐라의 외로운 섬은 생식에 힘씀이 있어서 축산의 암컷도 또한 바다 건너는 것을 금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이랴. 밝은 눈동자와 흰 이의 아름다운 사람이 천도 아니고 만도 아닌데 운해(雲海)[9]에 매몰되었도다.

몸은 상도(上都)[10]에서 유람하고 발은 명산을 밟은 사람 이제 만덕이 있도다. 축적된 지령(地靈)[11]이 한 번 발설(發泄)[12]됨이 있으니, 또한 소간(宵旰)[13]의 일념이 해외까지 적신 은혜는 어리석은 필부(匹婦)[14]도 진실로 알아 북이 북채에 응하는 것 같도다. 애오라지 말을 써서 주나니 뜻은 언사에 나타났다네.

만덕은 제주의 훌륭한 여인
예순 나이 마흔쯤으로 보이구료.
평생 모은 돈으로 쌀 팔아 백성을 구제하고
한 번 바다를 건너 궁궐에 조회하였네.
평생 소원 금강산 유람
안개 낀 동북 사이에 있도다.
임금님께서 빠른 역마를 하사하시니

---

8 향리(鄕里) : 고향.

9 운해(雲海) : 끝없이 광활한 바다.

10 상도(上都) : 서울.

11 지령(地靈) : 땅의 영묘한 기운. 즉, 좋은 지세(地勢)를 말함.

12 발설(發泄) : 퍼져 흩어짐.

13 소간(宵旰) : 소간은 소의간식(宵衣旰食)의 준말.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하여 미명에 일어나 정복을 입고 해가 진후에 저녁밥을 한다는 뜻에서 온 말.

14 필부(匹婦) : 한 사람의 여자. 부녀(婦女).

천 리에 뻗힌 영광이 관동(關東)을 진동시키네.
높이 올라 멀리 장관을 만끽하고
손을 흔들며 제주로 돌아가네.
탐라는 아득한 고부량(高夫良)[15]부터 있었지만
제주 여인으로 처음 서울을 관광하였지.
우레 같이 왔다가 고니처럼 날아가니
높은 풍채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지.
인생살이 이처럼 이름을 드날리니
옛날 여회청대(女懷淸臺)[16]를 어찌 부러워하리.

送萬德還耽羅

萬德 耽羅寡婦 乙卯大饑 糶米賑飢 州牧以聞 至尊動色 問萬德所欲 萬德無所欲 欲見金剛山 遂錄名女醫 賜以驛遞 俾成其願 珍頒便蕃 道路輝光 以還其鄕 嗟耽羅孤島 務在生殖 畜産之雌亦禁渡海 況在于人 明眸皓齒 無千無萬 埋沒雲海 身遊上都 足

15 고부량(高夫良) : 제주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삼을나(三乙那). 즉, 고을나(高乙那) · 부을나(夫乙那) · 양을나(良乙那).

16 여회청대(女懷淸臺) : 여회청대의 고사(故事). 지금의 사천성 장수현(四川省長壽縣) 남쪽에 있는 대(臺)의 이름. 『史記』「貨殖傳」에 "파(巴)의 과부(寡婦) 청(淸)은, 그 선조가 단혈(丹穴)을 얻어, 그 이익을 여러 세대에 걸쳐 독점하였으며 집이 또한 어림할 수 없이 부유하였음. 청(淸)은 과부인데도, 잘 그 가업을 지키고, 용재(用財)를 자위(自衛)하여 침범을 보지 못하였음. 진시황이 정부(貞婦)라고 하여 객(客)으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어 주었다."고 하고 있음.(『漢書』「貨殖, 巴寡婦淸傳」巴寡婦淸 其先得丹穴 而擅其利數世 家亦不訾 淸寡婦也 能守其業 用財自衛 不見侵犯 秦始皇帝以爲貞婦而客之 爲築女懷淸臺)

踐名山 今有萬德 將地靈久蓄 一有發泄 亦宵旰一念 滲漉海外匹婦與知 如鼓應桴 聊贈以言 義形于辭.

萬德瀛洲之奇女 六十顔如四十許 千金糴米救黔首 一航浮海朝紫禦 但願一見金剛山 山在東北烟霧間 至尊啣肯賜飛驛 千里光輝動江關 登高望遠壯心目 飄然揮手還海曲 耽羅遠自高夫良女子今始觀上國 來如雷喧逝鵠擧 長留古風灑寰宇 人生立名有如此 女懷淸臺安足數

15. 박제가(朴齊家)의 「만덕이 제주로 돌아갈 때 송별한 시(送萬德歸濟州詩)」
(『정유각집(貞蕤閣集)』권4)

【해제】

『정유각집』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제가(朴齊家)의 시문집이다. 정유(貞蕤)는 박제가의 장년 이후에 사용한 호이다. 이는 정조가 박제가의 집에 들러 그 집에 있는 반송(盤松)에 '어애송(御愛松)' 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상풍진 속에서도 지조를 견지하려는 지향과 소망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의 권1에는 서(序)·기(記)·발(跋)·설(說)·논(論)·명(銘)·잠(箴)·찬(贊)·송(頌)·정문(呈文)·상량문(上樑文), 권2에는 부(賦)·잡저(雜著), 권3에는 제문(祭文)·묘명(墓銘)·행장(行狀)·전(傳), 권4에는 서(書)로 국내외의 친구 및 아들과 주고받은 서신이 수록되었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권4에 「만덕이 제주로 돌아갈 때 송별한 시(送萬德歸濟州詩)」란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이 글에서도 전반부는 만덕의 행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칠언고시로 만덕을 노래하고 있다.

【작자】

박제가(朴齊家). 1750(영조 26)~1805년(순조 5).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자는 차수(次修)·재선(在先)·수기(修其), 호는 초정(楚亭)·정유(貞蕤)·위항도인(葦杭道人)이다. 율(栗)의 6대손자이며

승지 평(坪)의 서자이다.

소년시절부터 시 · 서 · 화에 뛰어나 문명을 떨쳐 19세를 전후하여 박지원(朴趾源)을 비롯한 이덕무(李德懋) · 유득공(柳得恭) 등 서울에 사는 북학파들과 교유하였다. 1776년(정조 원년)에는 이덕무 · 유득공 · 이서구(李書九) 등과 함께 『건연집(巾衍集)』이라는 사가시집(四家詩集)을 내어 문명을 청나라에까지 떨쳤다. 1778년에는 사은사 채제공(蔡濟恭)을 따라 이덕무와 함께 청나라에 가서 이조원(李調元) · 반정균(潘庭筠) 등의 청나라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돌아온 뒤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하여 『북학의(北學議)』 내 · 외편을 저술하였다.

1779년 3월에는 이덕무 · 유득공 · 서이수(徐理修) 등의 서얼 출신 학자들과 더불어 규장각의 검서관(檢書官)이 되었다. 이로부터 13년간 규장각 내 · 외직에 근무하면서 여기에 비장된 서적들을 마음껏 읽고, 정조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과 깊이 사귀면서 왕명을 받아 많은 책을 교정 · 간행하였다.

1801년(순조 1)에는 사은사 윤행임(尹行恁)을 따라 이덕무와 함께 네 번째 연행길에 올랐으나 돌아오자마자 동남성문의 흉서사건 주모자인 윤가기(尹可基)와 사돈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혐의가 있다 하여 종성에 유배되었다가 1805년 풀려났으나 곧 죽었다.

저서로는 『북학의』 · 『정유집(貞蕤集)』 · 『정유시고(貞蕤詩稿)』 등이 있다.

만덕(萬德)이 제주로 돌아갈 때 송별한 시

을묘년(乙卯年)[1]에 탐라에 큰 흉년이 들자 여인 만덕은 곡식을 내놓아 백성을 진휼(賑恤)[2]하였다. 이에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매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금강산은 강원도 회양부(淮陽府)[3]에 있는데, 본 고을로부터는 수륙 양로로 2천여 리나 된다. 예로부터 규칙으로 섬에 사는 여자들은 바다를 건널 수 없었다. 성상(聖上)께서는 그 뜻을 기특하게 여기시어 여의(女醫)[4]로 삼아 약원(藥院)[5]에 배속시켰다. 역마(驛馬)를 내어 체송(遞送)[6]하도록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게 하였다. 성인이 굽어 살피시니 일개 필부(匹婦)[7]를 보호하였는데 전례 없이 이러하였다. 만덕은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진신(搢紳)[8] 간의 입에 자주 오르게 되었다. 아, 만덕이 남자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껏해야 임시 삼품복(三品服)에 만호(万戶)[9]의 인수(印授)를 차는데 그쳤을 뿐으로 어찌 이 세상에 그 이름이 널리 전해졌을까? 이것은 그가 여인네들의 따분한 기질을 싹 쓸어버렸기에 천 년을 두고 그 이름이 살아남을 것이요, 여자라는 운명에 항거하여 창명(滄溟)[10]을 건너 서울의 궁궐로 가서 임금님을 알현하고

---

1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2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함.

3 회양부(淮陽府) : 강원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금강산이 있는 지역으로 현재 동서로 나누어 동쪽은 휴전선 이북에 따른 인제군, 양구군 일부를 합하여 금강군이 되고 서쪽은 일부 땅을 세포군으로 내어주고, 나머지 땅으로 회양군을 이루고 있음.

4 여의(女醫) : 조선시대 여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여자 의원.(『經國大典 3』「禮典, 選上」女醫七十人 每三年並以諸邑婢年少者選上)

5 약원(藥院) : 조선 시대 내의원(內醫院)을 달리 이르는 말. 내국(內局).(『六典條例 2』「吏典, 承政院, 啓稟」藥院副提調一員例兼 而推考房則微稟換房)

6 체송(遞送) : 여러 곳을 차례로 거쳐서 전하여 보냄.

7 필부(匹婦) : 한 사람의 여자. 부녀(婦女).

8 진신(搢紳) : 선비나 사대부를 이름.

9 만호(万戶) : 조선 때 각 도(道)의 여러 진(鎭)에 두었던 종4품 무관직.

10 창명(滄溟) : 큰 바다.

명산을 구경했으니,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 넉넉하게 멋쟁이로 살다 간 사람으로 귀하다 할 만한 사람이다. 만덕은 겹눈동자[11]라 특이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다. 그렇다 해서 그녀가 불심선골(佛心仙骨)[12]을 갖춘 사람일까마는 아마도 전세에 심어 놓은 연고가 아닌가 싶다. 그녀에게 시 한 수 적어 준다.

넓은 천지 바다 밖에는 못 나가니
넓다 한들 뉘라서 시집 장가 끝내랴.
제주라 섬나라 이웃은 일본
사또는 천 년 세월에 귤만 바쳐왔네.
귤밭 깊은 숲속 태어난 여자의 몸
의기는 드높아 주린 백성 없었네.
벼슬은 줄 수 없어 소원 물으니
일만 이천 봉 금강산 보고 싶다네.
의젓이 다듬은 모습에 돛대도 높이
남쪽별은 빛나 임금님도 기쁨을
바삐 말에 올라 금강산 향하니
햇빛도 바람결에 노리개에 찬란하네.
정녕 깨달았으리 신라와 마음은 하나
생김도 달라 여자 몸 겹눈동자라.
이제야 알겠노라 바다 건너 온 뜻은

---

11 겹눈동자 :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 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史記』「項羽本紀論」 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12 불심선골(佛心仙骨) : 부처처럼 착한 마음과 신선의 기질.

자그만 세상일에 있지 아니했음을.

送萬德歸濟州詩 有小序

歲乙卯耽羅大饑 女人萬德捐粟賑民 間奚願 願見金剛山 山在江原道淮陽府 距本牧水陸二千餘里 故事島中女毋過海 上奇其志 以女醫召隷藥院 給驛遞以成其志 聖人之體下 匹婦之獲所古無與比 萬德由此名動搢紳間 嗟乎 使萬德男子乎 卽不過假三品服佩万戶印授而止耳 惡能必傳於世哉 惟其掃蛾眉而活千命 抗脂粉而涉滄溟 朝京闕訪名山 入世出世 綽有風致者 爲可貴耳 萬德目重瞳 蓋異相也 豈佛心仙骨 有夙世之種者歟 於其歸贈之以詩

大寰海外頭不出 五嶽誰能昏嫁畢 毛羅爲島界榑桑 星主千秊僅貢橘 橘林深處女人身 意氣南極無饑民 爵之不可問所願 願得万二千峰看 翠袖雲鬟一帆峭 弧南所照回天笑 催乘駟騎向煙霞 佛日仙風環佩耀 眞覺新羅一念通 異相巾幗符重瞳 從知破浪乘風志 不是桑弧蓬矢中

16. 유재건(劉在建)의 「만덕(萬德)」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

【해제】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은 유재건(劉在建)이 펴낸 조선조 이래 중인 · 서리 등의 하층계급 출신으로 각 방면에서 뛰어난 308명의 인물들의 행적을 모은 전기집(傳記集)이다. 총 10권 3책으로 나누어지는데 1권은 학생(學行), 2권은 충효(忠孝), 3권은 지모(智謀), 4권은 열녀(烈女), 5권부터 7권까지는 문학(文學), 8권은 서화(書畵), 9권은 의학(醫學)과 잡예(雜藝), 10권은 승려(僧侶)와 도류(道流)의 순서로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인물 중 전대인의 전기에 전이 실린 것은 채택하여 편집하고, 전이 없는 인물은 스스로 전을 지어 실었으므로 인용된 책이 52종에 달한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4권의 열녀편에 스물여덟 번째로 수록되었는데, 『번암집(樊巖集)』에서 재수록한 채제공의 「만덕전」과 『범곡기문(凡谷記聞)』에서 인용한 기생 홍도(紅桃)가 만덕에 써 준 칠언절구의 한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채제공의 「만덕전」의 경우 두 군데에서 글자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만폭동 · 중향성의 기이한 경치를 다 구경하였다(歷探萬瀑衆香奇勝)"와 "마침내 안문령을 넘어서(卒乃踰雁門嶺)"가 『이향견문록』에서는 각각 "歷探萬瀑衆皆奇勝"과 "卒乃逾雁門嶺"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만덕전」의 맨 끝부분 "이때는 우리 임금 21년 정사년 하지였다. 번암 채상국의 나이가 일흔 여덟에 이 글을 충간의담헌에서 쓰다.(聖上二十一年丁巳

夏至日 樊巖蔡相國七十八 書于忠肝義膽軒)" 부분도『이향견문록』에서는 빠져있다.

【작자】

유재건(劉在建). 1793(정조 17)~1880년(고종 17). 조선 말기의 학자로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자는 덕초(德初)이고, 호는 겸산(兼山)이다.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창(敞)의 후손이었으나 중세에 가세가 몰락하여 서리(胥吏) 계급으로 떨어졌다.

주위사람들로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시문에 능하고 특히 전서(篆書)·해서(楷書)에 뛰어났다. 오랫동안 서리로 규장각에 봉직하면서『열성어제(列聖御製)』를 편찬하는 데 힘썼으므로 나라에서는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 그에게 상호군(上護軍)의 관직을 내렸다. 또한 당나라 이후의 근체시 가운데 해와 달, 꽃과 새 등의 소재로 지은 명시를 가려『고금영물근체(古今詠物近體)』라는 이름으로 펴내었는데, 7,000수가 넘는 방대한 양의 시를 수록하였다. 이 책에서는 조선시대 시인 613명 중 370명을 위항시인에서 선정하여 위항문학의 융성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법어(法語)』,『풍요삼선(風謠三選)』,『겸산필기(兼山筆記)』,『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등의 편저가 있다.

만덕(萬德)

만덕의 성은 김씨이니 탐라(耽羅)[1]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다. 어려

1 탐라(耽羅) : 제주의 옛 이름.

서 어머니를 여의고 돌아가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조금 자라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妓案)[2]에 올렸다. 만덕이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하였으나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나이 이십 여 세 되었을 때 그 사정을 울며 관가에 하소연하니 관가에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기안에서 그의 이름을 없애고 다시금 양민으로 되돌려 주었다. 만덕은 비록 집에 거하면서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재화를 늘리는 데에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 놓거나 했다. 그런 지 몇 십 년 만에 제법 부자로 이름이 드높았다. 우리 임금 19년 을묘년(乙卯年)[3]에 탐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의 죽은 시신이 더미로 쌓였다. 임금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구제하기를 명령했다. 바닷길 팔백 리에 바람 편에 오가는 돛대가 북[4]처럼 재빨랐으나 오히려 미치지 못했다.

이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취하여 그의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날랐다. 그리하여 부황(浮黃)[5] 난 자가 그 소문을 듣고 관청 마당에 모여들기를 마치 구름 같았다. 관가에서는 그 완급(緩急)[6]을 조정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들 남녀는 모두 만덕의 은혜를 찬송하여,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네."

---

2 기안(妓案) : 관아(官衙)에서 기생의 이름을 기록하여 둔 책.

3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4 북 : 피륙을 짤 때 씨실의 꾸리를 넣는, 베틀 부속품의 하나.

5 부황(浮黃) : 오랫동안 굶주려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6 완급(緩急) : 위급함의 느림과 빠름.

라고 했다. 진휼이 끝난 뒤에 목사가 그 일을 조정에 올리니 임금이 기이하게 여겨서,

"만덕이 만일 소원이 있다면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돌보아 주겠다."

하고 회유(回諭)했다. 목사는 그제야 만덕을 불러서 임금의 말씀대로,

"너는 무슨 소원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만덕은,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 이천 봉[7]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다. 대개 탐라의 여인들은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함이 나라의 법이었다. 목사가 또 그의 소원을 올리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의 소원대로 하라 하여 관가에서 노수(路需)[8]와 역마(驛馬)[9]를 주고, 음식을 번갈아서 제공케 했다.

만덕은 드디어 배를 타고 만경의 푸른 바다를 건너서 병진년(丙辰年)[10] 가을에 서울에 들어와서 채상국(蔡相國)[11]을 한두 번 만났다. 상국은 그 사실을 임금께 여쭈어서 선혜청(宣惠廳)[12]에 명령하여 달

---

7 일만 이천 봉 : 실제 금강산의 봉우리가 일만 이천 봉우리인 것은 아니며, 일만 이천 봉은 불경에서 유래된 말로 그만큼 봉우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 말임.

8 노수(路需) : 노자(路資). 여비.

9 역마(驛馬) : 포마(鋪馬). 역참에 준비되어 있는 말.

10 병진년(丙辰年) : 1796년(정조 20).

11 채상국(蔡相國) :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상국' 은 영의정 및 좌 · 우의정의 총칭.

12 선혜청(宣惠廳) : 조선 때 대동법(大同法)이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면서 이의 관리를 위하여 두었던 관청.

마다 식량을 대주었다. 그런 지 며칠 만에 그로써 내의원(內醫院)[13] 의녀(醫女)[14]를 삼아서 모든 의녀의 반수(班首)[15]에 두었다. 만덕은 이전에 있던 사례에 의하여 궁궐 안에 있는 문 안에 들어가 문안을 드렸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여시(女侍)[16]로 하여금 말씀을 내렸다.

"네, 한 개 여자로서 의기(義氣)[17]를 내어서 주린 백성 천여 명을 구제했으니 갸륵한 일이로다."

그리고 상사(賞賜)[18]한 것이 많았다. 그런지 반 년 만인 정사년(丁巳年)[19] 삼월에 금강산에 들어가 만폭동(萬瀑洞)[20]·중향성(衆香城)[21]의 기이한 경치를 다 구경하였다. 금불(金佛)을 만나서는 반드시 절하고 공양 드려 그 정성을 극진히 했다. 이는 대체로 불법이 탐라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까닭에 만덕이 나이가 쉰 여덟이었으나 이제 처음 절과 부처를 구경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안문령(雁門嶺)[22]를 넘어서 유점사(楡岾寺)[23]를 거쳐

---

13 내의원(內醫院) : 조선 때 삼의사(三醫司)의 하나. 대궐 안에서 소요되는 의약(醫藥)을 맡아보던 관청.

14 의녀(醫女) : 조선 때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던 여자 의원(醫員).

15 반수(班首) : 우두머리.

16 여시(女侍) : 궁궐 안에서 대전(大殿)·내전(內殿)을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의 총칭.

17 의기(義氣) : 의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기개.

18 상사(賞賜) : 공로·선행(善行)을 기려서 금품을 내려 줌.

19 정사년(丁巳年) : 1797년(정조 21).

20 만폭동(萬瀑洞) : 금강대 아래 원통골에서 내륙 깊숙이 마하연이 있는 백운동 입구로부터 약 17㎞에 이르는 구간. 수많은 담소와 폭포 그리고 기암괴석이 즐비하게 늘어서 금강산의 계곡미를 대표하는 곳으로 유명함.

21 중향성(衆香城) : 내금강(內金剛)의 영랑봉(永郎峰) 동남쪽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하얀 바위섬.

22 안문령(雁門嶺) : 내금강에서 외금강으로 넘어오는 고개.

고성(高城)[24]으로 내려가 삼일포(三日浦)[25]에서 배를 타고 통천(通川)[26] 총석정(叢石亭)[27]에 올라 천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구경을 한 뒤로 서울로 다시금 돌아와서 며칠을 머무르고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원(內院)[28]에 들어가서 물러감을 고했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앞서와 같이 상을 내렸다.

이때엔 만덕의 이름이 서울 안에 가득하여 공경대부(公卿大夫)[29]와 사(士)[30] 모두 한 번 만덕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 없었다.

만덕이 떠날 때에 채상국을 보고 목메인 소리로,

"이승에선 다시금 대감의 얼굴을 뵈올 수 없겠습니다."

하고 이내 산연(潸然)[31]히 눈물을 흘렸다.

---

23 유점사(楡岾寺) : 외금강의 구룡연(九龍淵)을 지나 청룡산과 남산 사이에 있음. 31본산의 하나로서 임진왜란 때에는 서산대사(西山大師)와 사명당(四溟堂), 그리고 처영대사(處英大師)가 승병을 일으켰던 근거지이기도 하며, 유명한 금강 53불이 봉안되어 있기도 함.

24 고성(高城) :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한 지금의 고성군. 북은 통천군, 동은 동해, 남은 양양, 서는 회양, 서북부는 태백산맥이 뻗어 험준한 산지, 동남부는 완경사를 이룸. 이 지역에 외금강, 신금강, 해금강 등의 경승지 및 온정리 온천과 명승고적이 많음.

25 삼일포(三日浦) :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 둘레는 8㎞, 물 깊이는 9~13m에 이름. 사선정(四仙亭)·단서암(丹書巖) 등이 있고, 호수 풍경으로는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곳으로 꼽힘.

26 통천(通川) : 강원도 북동부에 위치.

27 총석정(叢石亭) : 관동 8경의 하나이며, 약 1천 미터 구간에 6각(혹은 8각, 4각, 5각) 모가 반듯하고 곧게 선 돌기둥의 무리임. 바위에 구멍이 뚫린 천도를 비롯하여 입총(立叢, 서 있는 것)·좌총(坐叢, 앉은 것)·와총(臥叢, 누운 것) 등의 기암괴석이 무수함. 입총 가운데 큰 것은 높이가 12~20m에 이름.

28 내원(內院) : 비빈(妃嬪)들이 거처하는 궁궐 안의 궁실(宮室).

29 공경대부(公卿大夫) : 벼슬이 높은 사람들.

30 사(士) : 문벌이 높은 사람.

채상국은,

"옛날 진시황(秦始皇)[32]과 한무제(漢武帝)[33]는 모두들 '해외에 삼신산(三神山)[34]이 있다' 하였고, 또 세상에서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한라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영주산(瀛洲山)[35]이요, 금강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봉래산(蓬萊山)[36]이 아닌가. 넌 이미 탐라에 자라나서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白鹿潭)[37]의 물을 떠내고, 이제 또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였으니, 이는 삼신산 중에서 그 둘은 벌써 너에게 점령되었지 않은가. 온 천하 수많은 사내 중에서 이런 복을 누린 자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직을 당해서 도리어 아녀자의 가련한 태도를 짓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위안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서술하여 만덕전(萬德傳)을 써서 한 번 웃으며 그에게 주었다. 『번암집(樊巖集)』

---

31 산연(뼛然) : 눈물을 흘리는 모양.

32 진시황(秦始皇) : 진(秦)의 초대 황제. 육국(六國)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중앙 집권적 왕조를 건설하고 스스로 시황제(始皇帝)라 함. 항양(咸陽)으로 도읍을 옮기고 봉건제(封建制)를 폐지, 처음으로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였으며, 화폐 · 도량형(度量衡) · 문자 · 물품의 규격을 통일함. 이사(李斯)의 의견을 듣고 분서 갱유(焚書坑儒)를 하고 장성(長城)을 쌓았음.

33 한무제(漢武帝) : 한 경제(漢景帝)의 아들로 이름은 철(徹). 재위 54년 동안 유학(儒學)을 숭상하였으며, 군사를 일으켜 판도(版圖)를 크게 넓혔음.

34 삼신산(三神山) : 신선이 살고 있다는 세 산. 봉래산(蓬萊山) · 방장산(方丈山) · 영주산(瀛洲山)으로 각각 금강산(金剛山) · 지리산(智異山) · 한라산(漢拏山)을 가리킴.

35 영주산(瀛洲山) : 원래는 동해 가운데 있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의 하나. 여기서는 한라산을 가리킴.

36 봉래산(蓬萊山) : 신선이 산다고 하는 신령한 산. 여름철의 금강산의 다른 이름.

37 백록담(白鹿潭) : 한라산의 산정에 있는 직경 약 500m, 둘레 1.5㎞ 내외의 대분화구.

만덕이 서울에 왔을 때 기생 홍도(紅桃)가 다음과 같이 시를 주었다

여의(女醫) 행수(行首)[38] 탐라 기녀가
만 리 물결에 바람 두려워하지 않았네.
또 금강산 깊은 곳 향해가니
향기로운 이름 교방(敎坊)[39]에 남으리.

『범곡기문(凡谷記聞)』[40]

萬德

萬德者 姓金 耽羅良家女也 幼失母 無所歸依 托妓女爲生 稍長 官府籍萬德名妓案 萬德雖屈首妓於役 其自待不以妓也 年二十餘 以其情泣訴於官 官矜之 除妓案 復歸之良 萬德雖家居乎 庸奴耽羅丈夫 不迎夫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聖上十九年乙卯 耽羅大饑 民相枕死 上命般粟往哺 鯨海八百里 風檣來往如梭 猶有未及時者 於是 萬德捐千金 貿米陸地諸郡縣 棹夫以時至 萬德取十之一 以活親族其餘盡輸之官 浮黃者聞之 集官庭如雲 官劑其緩急 分與之有差 南若女 出而頌萬德之恩 咸以爲活我者萬德 賑訖 牧臣上其事于朝 上大奇之 回諭曰 萬德如有願 無問難與易 特施之 牧臣

38 여의행수(女醫行首) : 조선시대 여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여자 의원 가운데 우두머리.

39 교방(敎坊) : 기루(妓樓). 기생집.(吳昌齡,「東坡夢」眞箇是天香偏出衆 國色獨超羣 可知道敎坊爲第一 花內牡 丹尊)

40 범곡기문(凡谷記聞) : 전해지지 않음.

招萬德 以上諭諭之曰 若有何願 萬德對曰 無所願 願一入京都 膽望聖人在處 仍入金剛山 觀萬二千峯 死無恨矣 盖耽羅女人之禁 不得越海而陸 國法也 牧臣又以其願上 上命如其願 官給舖馬 遞供饋 萬德一帆踔雲海萬頃 以丙辰秋 入京師 一再見蔡相國 相國以其狀白 上命宣惠廳 月給糧 居數日 命爲內醫院醫女 俾居諸醫女班首 依例詣內閤門問 問安殿宮 各以女侍傳教曰 爾以一女子 出義氣 救饑餓千百名 奇哉 賞賜甚厚 居半載 用丁巳暮春 入金剛山 歷探萬瀑衆皆奇勝 遇金佛 輒頂禮 供養盡其誠 盖佛法不入耽羅國 萬德時年五十八 始見有梵宇佛像也 卒乃逾雁門嶺 由楡岾 下高城 泛舟三日浦 登通川之叢石亭 以盡天下瑰觀然後 還入京 留若干日 將歸故國 詣內院 告以歸 殿宮 皆賞賜如前 當是時 萬德名滿王城 公卿大夫士 無不願一見萬德面 萬德臨行 辭蔡相國 哽咽曰 此生不可復膽相公顔貌 仍潸然泣下 相國曰 秦皇漢武 皆稱 海外有三神山 世言 我國之漢拏 卽所謂瀛洲 金剛卽所謂蓬萊 若生長耽羅 登漢拏 [illegible]白鹿潭水 今又踏盡金剛 三神之中其二 皆爲若所句攬 天下億兆之男子 有能是者否 今臨別 乃反有兒女子刺刺態 何也 於是 叙其事爲萬德傳 笑而與之『樊巖集』

萬德入京時 妓紅桃有詩曰 女醫行首耽羅妓 萬里層溟不畏風 又向金剛山裡去 香名留在敎坊中『凡谷記聞』

17. 이원조(李源祚)의 「의기만덕(義妓萬德)」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권2)

【해제】

『탐라지초본』은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있을 때 편찬한 책으로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다. 권1에는 건치연혁(建置沿革)·읍호고증(邑號攷證)·산천·도서(島嶼)·물산·토속·관직·씨족·방리(坊里)·호구(戶口)·도로·교량·성지(城池)·단묘(壇廟)·학교, 권2에는 공해(公廨)·누관(樓觀)·진보(鎭堡)·봉수(烽燧)·목양(牧養)·과원(果園)·공헌(貢獻)·전결(田結)·대동(大同)·봉름(俸廩)·요역(徭役)·조적(糶糴)·창고·군액(軍額)·노비·공장(工匠)·인물·과환(科宦)·형승·제영(題詠)·고적(古蹟), 권3에는 제주로 기문(奇聞)·변정(邊情)-전수(戰守)·이선(異船)-표류(漂流)·구례(舊禮)·은휼(恩恤)-조진(調賑)·견탕(蠲蕩)·은전(恩典)·관안(官案)·판관(判官), 권4에는 정의(旌義)와 대정(大靜)으로 나누어서 각기 건치연혁·산천·도서·물산·토속·씨족·방리·호구·도로·교량·성지·단묘·학교·공해·누관·진보·봉수·목양·과원·공헌·전결·대동·봉름·요역·조적·창고·군액·노비·인물·과환·형승·고적·관안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 중 만덕에 대한 기록은 권2 인물편에 기록되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만덕의 행적이다.

【작자】

이원조(李源祚). 1792(정조 16)~1872년(고종 8).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본관은 성산(星山)이고, 초명은 영조(永祚)이며, 자는 주현(周賢), 호는 취송(鷲松)·나고(懶高)·호우(毫宇)·응와(凝窩)·만귀산인(晩歸山人) 등이다.

1792년(정조 16) 2월 경상북도 성주(星州) 대포리(大浦里)에서 성균관 진사 형진(亨鎭)과 함양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5세에 두 살 연상인 풍양 조씨(豊壤趙氏)와 혼인하였다.

1809년(순조 9)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837년(헌종 3) 정언으로서 기강이 문란하여져 사족(士族)들의 사치가 극도로 달하여 민중들의 간고함이 형언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쇄신책을 실시할 것을 간하였다. 그 후 1850년(철종 1) 경상도의 경주부윤에 오르고, 1854년 대사간에 이어 공조판서를 지냈다.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의 문하생이다.

1841년(헌종 7년) 정월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신축년 가을에 흉년으로 제주에 기근이 들자 호남의 연읍(沿邑)의 창고 쌀 2,500섬을 요청하여 실어온 뒤 굶주리는 제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재임 기간 동안 우도와 가파도에 들어가 밭으로 갈아먹도록 허가를 내려 주면서 세금을 사복시(司僕寺)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정동계(鄭桐溪) 적려유허비(謫廬遺墟碑)'를 세우고 향현사(鄕賢祠)를 귤림서원 곁에 세워 고득종(高得宗)을 제사하도록 하였다.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을 편찬하였다.

의기 만덕(義妓萬德)

의기 만덕은 양가(良家)[1]의 딸로서 기적(妓籍)[2]에 올랐는데, 생신

(生身)[3]을 잘 다스려 수천 금을 이루었다. 갑인년(甲寅年)[4]에 크게 흉년이 들매 재산을 내어놓아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휼하였다. 정조 임금께서 들으시고 가상히 여겨 목사에게 소원을 묻도록 하였는데, 소원이 왕도(王都)[5]와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식량과 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가 하면, 서울로 도착하자 내의녀(內醫女)[6]로 삼아 차비문(差備門)[7] 밖에서 친히 보시고 상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역말을 타고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금강산을 유람하고 도로 서울에 이르렀다가 본토(本土)[8]로 돌아왔다. 상국(相國)[9] 채제공(蔡濟恭)이 그녀의 전기를 지어 제주로 보내주었다.

---

1 양가(良家) : 문벌이 좋은 집안. 세가(世家).

2 기적(妓籍) : 기녀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대장.(『宋史』 407「楊簡傳」 移文首罷妓籍 尊敬賢士)

3 생신(生身) : 자신의 몸.(『列子』「楊朱」 雖全生身 不可有其身)

4 갑인년(甲寅年) : 1794년(정조 18).

5 왕도(王都) : 왕궁(王宮)이 있는 도성.

6 내의녀(內醫女) :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는 의녀(醫女).(『朝鮮宣祖實錄』 33년 6월 辛丑條, 以備忘記 傳于政院曰 側聞內醫女愛鍾 乃淫娼之甚者 本不可近於內殿之側)

7 차비문(差備門) : 임금이 거처하는 편전(便殿)의 앞문을 이르는 말.(『朝鮮世祖實錄』 36 11년 8월 庚子條, 旣而政府政院堂上 就差備門外啓 震知張米豆 潛授僕夫臣等未及知之 稽緩啓達 請待罪)

8 본토(本土) : 태어나 자란 곳. 여기서는 제주인 '탐라' 를 말함.

9 상국(相國) : 영의정 및 좌 · 우의정의 총칭. 여기서는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을 가리킴.

義妓萬德

義妓萬德 以良家女 托名妓籍 善治生身 致累千金 當甲寅大
盡散其財 賑飢民 正廟聞而嘉之 命守臣 問所願 願一見王都及
金剛山 命給馬 上送入京 卽付內醫女 招見差備門外 賞賜甚厚
乘馹傳食往 遊金剛 還到京歸本土 蔡相國濟恭作傳 以遣之

18. 미상의 「의기만덕(義妓萬德)」
(『탐라지(耽羅誌)』(日本東京大學所藏本) 권1)

【해제】

작자 미상의 일본동경대학 소장본의 『탐라지』는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록조(先生錄條)에 이의식(李宜植) 목사까지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체임(遞任) 시기인 1848년(헌종 14) 3월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1에는 제주로 건치연혁(建置沿革)·진관(鎭管)·관원(官員)·읍명(邑名)·읍호고증(邑號攷證)·성씨(姓氏)·풍속·형승(形勝)·산천·도서(島嶼)·교량(橋梁)·토산·전결(田結)·대동(大同)·봉름(俸廩)·요역(徭役)·성곽·방리(坊里)·호구(戶口)·도로·방호소(防護所)·수전소(水戰所)·봉수(烽燧)·궁실(宮室)·공해(公廨)·누정(樓亭)·창고(倉庫)·조적(糶糴)·학교·단묘(壇廟)·불우(佛宇)·장관(將官)·군병·공장(工匠)·노비·과원(果園)·목양(牧養)·의약(醫藥)·공헌(貢獻)·고적(古蹟)·선생록(先生錄)·과환(科宦)·인물, 권2에는 제영(題詠)·기문(奇聞)·이견(異見)·변정(邊情)·구례(舊禮)·은휼(恩恤)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권1의 인물편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탐라지초본』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끝부분의 두어 자만 다르다(蔡相國濟恭作傳 以遣之, 蔡相濟恭作傳 而遣之).

의기 만덕(義妓萬德)

의기 만덕은 양가(良家)의 딸로서 기적(妓籍)에 올랐는데, 생신(生身)을 잘 다스려 수천 금을 이루었다. 갑인년(甲寅年)에 크게 흉년이 들매 재산을 내어놓아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휼하였다. 정조 임금께서 들으시고 가상히 여겨, 목사에게 소원을 묻도록 하였는데, 소원이 왕도(王都)와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식량과 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가 하면, 서울에 도착하자 내의녀(內醫女)로 삼아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친히 보시고 상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역말을 타고 아침 저녁으로 날라주는 음식을 먹으며 금강산을 유람하고 서울에 이르렀다가 본토(本土)로 돌아왔다. 상국(相國) 채제공(蔡濟恭)이 그녀의 전기를 지어 제주로 보내주었다.

義妓萬德

義妓萬德 以良家女 托名妓籍 善治生身 致累千金 當甲寅大
盡散其財 賑飢民 正廟聞而嘉之 命守臣 問所願 願一見王都及
金剛山 命給馬 上送入京 卽付內醫女 招見差備門外 賞賜甚厚
乘馹傳食往 遊金剛 還到京歸本土 蔡相濟恭作傳 而遣之

19. 김석익(金錫翼)의 「행수 김만덕(行首金萬德)」 (『탐라기년(耽羅紀年)』 권3)

【해제】

『탐라기년(耽羅紀年)』은 1918년 김석익(金錫翼)이 편찬한 4권의 책으로 고려 936년(태조 21)부터 1906년(광무 10)까지의 사실을 편년체로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의 앞머리에는 외서(外書)로서 제사서(諸史書)를 참고하여 수록하고 있다. 권1은 탐라의 성주왕자(高麗縣令 · 副使 · 牧使 · 萬戶 · 元招討使 · 達魯花赤 · 按撫使), 권2는 제주의 성주왕자(左右都知官 · 만호안무사 · 절제사 · 목사 · 판관) · 정의(현감) · 대정(현감), 권3에는 제주(목사 · 판관) · 정의(현감) · 대정(현감), 권4에는 제주(목사 · 판관 · 觀察使參事官 · 목사 · 군수) · 정의(현감 · 군수) · 대정(현감 · 군수)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권3의 후반부에 수록되었는데, 일반적인 만덕의 행적을 기술하였다.

【작자】

김석익(金錫翼). 1885(고종 22)~1956년. 일제강점기의 한학자이며 향토사학자로, 본관은 광산이며, 초명은 석조(錫祚), 자는 윤경(允敬), 호는 심재(心齋) · 일소도인(一笑道人) · 해상질사(海上佚史)이다.

제주시 이도동 동광양에서 태어났으며, 의병 참모 김석윤(金錫允)의 아우이다. 이용호(李容鎬)와 안병택(安秉宅)에 수학하였고, 경사

에 능통하였다.

1918년『탐라기년』을 간행하였다.

행수 김만덕

행수(行首)[1] 김만덕은 본주(本州)[2] 양가(良家)[3]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는데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敎坊)[4]에 의탁한 바 있었는데 근검하여 큰 재산을 이루었다. 이 해 봄에 도내에 큰 기근이 일매, 만덕은 재산을 내놓아 곡식을 운반하여다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다. 목사는 이 어진 일을 아뢰니, 왕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었다. 대답하여 가로되,

"번화한 서울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할 따름입니다."

하므로 특명으로 고을과 고을을 이어가며 돌보게 하고 내의녀(內醫女)[5]로 삼아 편전(便殿)[6]에 불러 은총을 베풀었고, 포마(舖馬)[7]를 주

---

1 행수(行首) : 동급의 품계나 신분을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의 우두머리.(『朝鮮太祖實錄 3』 2년 3월 丙辰條, 憲司上言 殿下曾下敎 奴婢爭訟 一皆永斷 刑曹都官不體上意 巧飾啓聞 欲起爭訟之端 請將知曹事張演議郎張羽 正郎趙謙佐郎尹莘等 皆罷職不敍 敎罷行首張演掌務尹莘老職)

2 본주(本州) : 그 고을. 해당 고을. 여기서는 제주목(濟州牧)을 가리킴.

3 양가(良家) : 문벌이 좋은 집안. 세가(世家).

4 교방(敎坊) : 기루(妓樓). 기생집.(吳昌齡,「東坡夢」眞箇是天香偏出衆 國色獨超羣 可知道敎坊爲第一 花內牡 丹尊)

5 내의녀(內醫女) :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는 의녀(醫女).(『朝鮮宣祖實錄』 33년 6월 辛丑條, 以備忘記 傳于政院曰 側聞內醫女愛鍾 乃淫娼之甚者 本不可近於內殿之側)

6 편전(便殿) : 임금이 평상시에 휴식하는 별전(別殿).

7 포마(舖馬) : 포마(鋪馬). 역참에 준비되어 있는 말. 역마(驛馬).

어 금강산을 편람(遍覽)[8]하게 하고, 또 그가 돌아올 때는 경대부(卿大夫)[9]들 모두가 신장(贐章)[10]을 지어 행차를 빛내어 주었다. 만덕은 칠순이나 용모가 보살을 방불케 하였으며, 눈은 겹눈동자[11]로 환히 맑았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만덕을 위하여 전기를 썼다.

行首金萬德 本州良家女也 幼而失恃 零丁貧苦長 而靡蔓托跡教坊 縮衣損食 貲産致大 是年春 島內大飢 萬德傾財 運穀濟活甚衆 牧使賢之以聞 王問何欲 對曰 願見京華金剛之勝而已 特命縣次續食充 內醫女寵頒便蕃 因給舖馬 遍覽金剛山 及其還朝之 卿大夫皆贐章侈行 七旬顔髮 彷佛仙釋 重瞳瑩澈 蔡相濟恭 爲之立傳

8 편람(遍覽) : 두루 유람함.(王鞏,「甲申雜記」御筆親制置一圖 出元豊尙書省是也 旣成 親幸便覽 悉如初旨)

9 경대부(卿大夫) : 경과 대부. 고급관리를 이름.(『史記』「汲鄭傳」至黯七世 世爲卿大夫)

10 신장(贐章) : 전송하는 글.

11 겹눈동자 : 중동(重瞳) :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 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史記』「項羽本紀論」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20. 김두봉(金斗奉)의 「女子中 特異한 人物」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

【해제】

이 책은 김두봉이 1932년에 간행한 책으로 총 32장의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와 6장의 '탐라지보유(耽羅誌補遺)'로 되어 있다. 먼저 제주도실기는 제1장 건치연혁(建置沿革), 제2장 지리하천, 제3장 기상(氣象), 제4장 교통 및 통신, 제5장 성내연혁(城內沿革), 제6장 종교연혁, 제7장 교육상황, 제8장 농산(農産)의 유래와 발전된 종류, 제9장 농사를 권장하는 춘경(春耕)굿 풍속, 제10장 축산의 발전, 제11장 삼림(森林)과 조림(造林)의 흥미, 제12장 무진장의 보고 제주도 해안, 제13장 고래(古來)의 유풍(遺風), 제14장 김녕당 전설, 제15장 풍속적 연등신(燃燈神), 제16장 한라산기 역(漢拏山記 譯), 제17장 영주십경가, 제18장 용연야범가(龍淵夜帆歌), 제19장 농부가, 제20장 부두에서 본 감상, 제21장 약수폭포(藥水瀑布), 제22장 한라산 별곡, 제23장 선시(鮮詩), 제24장 조어가(釣魚歌), 제25장 고대인물, 제26장 효자, 제27장 열녀, 제28장 토요(土擾), 제29장 부록, 제30장 성주왕자전(星主王子傳), 제31장 이조의 문치(文治), 제32장 총론 등으로 되어 있다. 탐라지보유는 제1장 윤음(綸音), 제2장 기문(記文), 제3장 상량문, 제4장 한시, 제5장 과환(科宦), 제6장 선생안(先生案)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제주도실기의 제27장 열녀편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만덕의 행적을 기록한 전반부와 이가환의 송별시인 후반

부로 되어 있다.

【작자】

김두봉(金斗奉). 1887년(고종 24)~?. 일제강점기의 향토사가로 호는 신천(信天)이다. 제주시 일도리에 거주하였다. 성내교회 신자로서 1925년 12월 신재홍(申才弘)·고창현(高昌炫)·김대봉(金大奉) 등과 함께 제주기독청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한문에도 조예가 깊어 영주음사(瀛州吟社) 회원으로 한시 짓기를 잘하였고, 제주 향토에 관한 한문 문적 발굴에 힘썼다. 1932년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를 지어 제주 향토사 발전에 기여하였다.

여자 중 특이한 인물

자선심(慈善心)[1]이 풍부하고 빈민(貧民)을 많이 구제한 행수(行首)[2] 내의녀(內醫女) 김만덕(金萬德) 사실(事實)

김만덕의 본관은 김해이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고생하고 자랐으나 장성한 뒤에 더욱 의탁할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몸을 교방(敎坊)[3]에 의지하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근검 절약으로

1 자선심(慈善心) : 인자하고 선량한 마음.

2 행수(行首) : 동급의 품계나 신분을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의 우두머리.(『朝鮮太祖實錄 3』 2년 3월 丙辰條, 憲司上言 殿下曾下敎 奴婢爭訟 一皆永斷 刑曹都官不體上意 巧飾啓聞 欲起爭訟之端 請將知曹事張演議郎張羽 正郎趙謙佐郎尹莘等 皆罷職不敍 敎罷行首張演掌務尹莘老職)

3 교방(敎坊) : 기루(妓樓). 기생집.(吳昌齡, 「東坡夢」 眞箇是天香偏出衆 國色獨超羣 可知道敎坊爲第一 花內牡 丹尊)

재산을 점점 늘렸다. 제주에는 연이어 갑인년(甲寅年)[4] 같은 흉년이 들어 개국 404년 정조 19년(1795) 봄에는 제주도민이 모두 굶주려 죽게 되었다. 이때에 김만덕은 큰 솥 둘을 걸어놓고 콩죽을 쑤어 한 사람에게 한 그릇씩 나누어 주며 많은 재물을 풀어서 사방의 곡식을 사들여 정월부터 4월까지 한결같이 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제하였다. 그 때문에 섬 안은 큰 기근을 면하고 살았으므로 당시 목사와 대중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목사 이우현(李禹鉉)[5]이 이 사실을 나라에 주달(奏達)[6]하자 성상(聖上)[7]께서 들으시고 아름답게 여겨 목사로 하여금 그의 소원을 묻게 하였더니,

"첩은 여자라 별 소원이 없고 성상이 계신 서울과 조선의 명승지인 금강산 구경이 소원입니다."

하였다. 목사가 이 대답을 주달하니 특명을 내려 각현(各縣)으로 하여금 그를 접대하게 하고 서울에 도착한 뒤에 내의녀(內醫女)[8]에 임명하였다.

임금께서 친히 만덕의 왼손을 잡으시고 칭찬하기를 네가 백성을 많이 구황(救荒)[9]하였다 하니 참으로 자선(慈善)한 사람이라 하고

---

4 갑인년(甲寅年) : 1794년(정조 18).

5 이우현(李禹鉉) : 주선 후기의 무신으로, 1794년(정조 18) 제주목사로 도임하고 그 후 2년이 지나서 병진년 4월에 연이어 흉년으로 호구(戶口)가 감축되었다고 하여 경상도 의성군(義城郡)으로 유배됨. 자비곡(自備穀) 1천 4백 30여 섬으로 진휼에 보충함.

6 주달(奏達) : 임금께 아룀.

7 성상(聖上) : 임금에 대한 높임말.

8 내의녀(內醫女) :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는 의녀(醫女).(『朝鮮宣祖實錄』 33년 6월 辛丑條, 以備忘記 傳于政院曰 側聞內醫女愛鍾 乃淫娼之甚者 本不可近於內殿之側)

9 구황(救荒) : 기근 때 빈민을 구제함.

서울을 구경시킨 뒤 역말을 주어 도백(道伯)[10]으로 하여금 금강산 일만 이천 봉[11]을 낱낱이 구경시켰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향대부(鄕大夫)[12]들이 별장(別章)[13]을 지어주고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전기를 지었다. 이러한 출신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 이는 옛날의 어진 부인들 중에도 보지 못한 일이었다.

사람됨은 몸이 비대하고 키가 크며 말씨가 유순하고 후덕한 분위기가 나타났고 눈은 겹눈동자[14]였다. 칠순이 되도록 성상(聖上)이 잡으셨던 왼 손목을 비단으로 감싸서 살빛을 감추었고 흰머리와 얼굴빛은 희여서 부처라 불렀다.

탐라로 돌아가는 만덕을 송별하다

금대 이가환

만덕은 제주의 훌륭한 여인
예순 나이 마흔쯤으로 보이구료.

---

10 도백(道伯) : 관찰사의 다른 이름. 도주(道主).

11 일만 이천 봉 : 실제 금강산의 봉우리가 일만 이천 봉우리인 것은 아니며, 일만 이천 봉은 불경에서 유래된 말로 그만큼 봉우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 말임.

12 향대부(鄕大夫) : 주대(周代)에 왕기(王畿)의 여섯 향(鄕) 중 한 향(鄕)의 정교(政敎)와 금령(禁令)을 맡아보던 경(卿)을 이르는 말.(『周禮』「地官, 序官」鄕大夫 每鄕卿一人)

13 별장(別章) : 이별을 읊은 시문.

14 겹눈동자 :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 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史記』「項羽本紀論」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평생 모은 돈으로 쌀 팔아 백성을 구제하고
한 번 바다를 건너 궁궐에 조회하였네.
평생 소원 금강산 유람
안개 낀 동북 사이에 있도다.
임금님께서 빠른 역마를 하사하시니
천 리 뻗힌 영광 관동(關東) 진동시키네.
높이 올라 멀리 장관 만끽하고
손 흔들며 제주로 돌아가네.
탐라는 아득한 고부량(高夫良)[15]부터 있었지만
제주 여인으로 처음 서울 관광하였지.
우레 같이 왔다가 고니처럼 날아가니
높은 풍채 오래 머물러 세상 맑게 하지.
인생살이 이처럼 이름을 드날리니
옛날 여회청대(女懷淸臺)[16] 어찌 부러워하리.

---

15 고부량(高夫良) : 제주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삼을나(三乙那). 즉, 고을나(高乙那)·부을나(夫乙那)·양을나(良乙那).

16 여회청대(女懷淸臺) : 여회청대의 고사(故事). 지금의 사천성 장수현(四川省長壽縣) 남쪽에 있는 대(臺)의 이름. 『史記』「貨殖傳」에 "파(巴)의 과부(寡婦) 청(淸)은, 그 선조가 단혈(丹穴)을 얻어, 그 이익을 여러 세대에 걸쳐 독점하였으며 집이 또한 어림할 수 없이 부유하였음. 청(淸)은 과부인데도, 잘 그 가업을 지키고, 용재(用財)를 자위(自衛)하여 침범을 보지 못하였음. 진시황이 정부(貞婦)라고 하여 객(客)으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어 주었다."고 하고 있음.(『漢書』「貨殖, 巴寡婦淸傳」巴寡婦淸 其先得丹穴 而擅其利數世 家亦不訾 淸寡婦也 能守其業 用財自衛 不見侵犯 秦始皇帝以爲貞婦而客之 爲築女懷淸臺)

女子中 特異한 人物

慈善心이 豊富하고 貧民을 만히 救生한 行首 內醫女 金萬德 事實

金萬德의 本은 金海라. 幼時에 父母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업시, 苦生하고 자랏스나, 長成한 後, 더욱 의탁할 곳이 업섯다. 할 수 업시, 몸을 敎坊에 의지하고, 生活을 經營하나, 그러나, 勤儉과 節約을 爲主하야, 資産이 漸漸 致大하더니, 이러구러, 濟州島는 연하야, 甲寅年 갓흔 凶年이 드러, 開國 四百四年 正廟朝 十九年 乙卯 봄에는, 濟州島 貧民이, 모다 飢死地境을 당하엿다. 째에 金萬德은, 大鼎二座를 거러노코 콩죽을 쑤어서, 每一人에게 하로 한 그릇식 주며, 만흔 財物을 풀어서, 四方 穀食을 貿來하며, 正月부터 四月까지, 한갈갓치 數萬 生命을 救濟하엿다. 그로 因하야, 島內가 大飢를 면하고 살엇스니 當時 牧使와 大衆은 稱誦이 藉藉하엿다. 牧使 李禹鉉은 이 事實을 나라에 奏達하엿더니, 聖上이 들으시고 아름다히 역이사 牧使로 하여곰 그 所願을 뭇게 하신대, 萬德이 엿자오데「妾은 女子라, 別所願이 업고, 聖上 게옵신 京華와 朝鮮에 名勝地 되는 金剛山 求景이 所願으로소이다」하엿다. 牧使는 그 對答을 奏達하니, 상이 特令을 나리사, 各縣次로 持對케 하시고, 京城에 이른 후에 內醫女에 充하시다.

상이 친히 萬德의 左手를 잡으시고, 못내 칭찬하시되, 네가 百姓을 만히 구활하엿다 하니, 참 慈善한 사람이라 하시고, 京華를 求景식히신 후, 인하야 舖馬를 주사, 道伯으로 하야곰, 金剛山 一萬二千峰을 낫낫치 求景식히시니라. 旅行을 맛치고 도라오게 됨에, 鄕大夫들이 別章을 지어주고, 領議政 蔡濟恭이 傳을 세웟다. 이러한 出身으로 이러한 事業은 古賢媛中에도, 보지 못하든 特異한 일이다.

爲人은 몸이 부대하고 키가 크며 言語가 柔順하엿고, 外形에 厚德한 빗이 나타나며, 눈은 重瞳이엿다. 老年七旬과지, 聖上이 잡으시든 左手는 綢緞으로 감어서, 살빗을 감추엇고, 白髮과 額光은 瑩澈하야, 釋佛이라 稱하였다.

送萬德還耽羅　　錦帶 李 家 煥

萬德瀛洲之奇女 六十顔如四十許 千金羅米救黔首 一航浮海朝紫禦
但願一見金剛山 山在東北烟霧間 至尊啣肯賜飛驛 千里光輝動江關
登高望遠壯心目 飄然揮手還海曲 耽羅遠自高夫良 女子今始觀上國
來如雷喧逝鵠擧 長留古風灑寰宇 人生立名有如此 女懷淸臺安足數

21. 淡水契의 「김만덕(金萬德)」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해제】

김석익 등 12명이 공동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는 크게 17개 항으로 분류한 다음 각기 하위 항목을 설정하고 각기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17개 항은 1. 지리, 2. 연혁, 3. 기상(氣象), 4. 풍속, 5. 구획(區劃), 6. 관공서, 7. 교통, 8. 통신, 9. 교육, 10. 종교, 11. 산업, 12. 언론기관, 13. 사회단체, 14. 산업기관, 15. 금융기관, 16. 인물, 17 관풍안(觀風案) 등이다. '1. 지리' 는 '산천 · 천지(泉池) · 사수(沙藪) · 도로 · 도서(島嶼) · 명승고적, '2. 연혁' 은 기문전설(奇聞傳說) · 제영(題詠) · 구례(舊禮), '16. 인물' 은 과환(科宦) · 진사(進士) · 문학 · 재유(才猷) · 필원(筆苑) · 효자 · 의사(義士) · 효부 · 열녀 · 절부(節婦) · 의녀(義女) · 충비(忠婢) · 의술(醫術) · 천문(天文) · 지리 · 부호(富豪) · 골계(滑稽) · 승려 · 기타 등으로 나누었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16. 인물' 의 의녀편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제주도실기』처럼 크게 만덕의 행적을 기술한 전반부와 이가환의 송별시인 후반부로 되어 있다.

【작자】

담수계(淡水契)는 일제강점기 때 식민정책에 의해 말살된 민족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광복 직후 제주도내 석학인 김석익(金錫翼) ·

김창희(金昌禧)·김경종(金景鐘)·김범준(金範埈)·김문희(金汶熙)·김석호·백용석(白庸錫) 등 12명이 결성한 지식인 그룹이다.

김만덕

본주(本州)[1]의 양가집 딸로서 어린 나이에 의지할 데를 잃어 빈곤이 막심하더니 자라서 교방(敎坊)[2]에 적(籍)[3]을 의탁하여 옷을 줄이고 음식을 덜어 재산이 커지게 되었다. 정조 19년[4] 봄 섬 안에 크게 기근이 들었는데 만덕이 가산을 전부 내놓아 양곡을 사서 운반하여 빈민을 구제한 것이 매우 많았다.

목사가 기특히 여겨 아뢰니, 왕이 목사에게 명하여 그 소원을 아뢰게 하였다. 만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서울과 금강산을 구경함이 소원입니다."

하니 왕이 특명을 내려 현차속식(縣次續食)[5]하게 하고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는 내의녀(內醫女)[6]를 맡겼다. 왕이 만덕의 왼손을 붙들고 칭찬한 후 번화한 서울을 다 구경시켜 주고 포마(鋪馬)[7]를 주어 도

1 본주(本州) : 해당 고을. 여기서는 제주목(濟州牧)·대정현(大靜縣)·정의현(旌義縣)의 세 고을을 가리킴.

2 교방(敎坊) : 기루(妓樓). 기생집.(吳昌齡,「東坡夢」眞箇是天香偏出衆 國色獨超羣 可知道敎坊爲第一 花內牡 丹尊)

3 적(籍) : 명부에 올림.

4 정조 19년 : 1795년.

5 현차속식(縣次續食) : 지나는 길의 각 현에서 차례로 음식물을 공급함.(『漢書』「武帝紀」徵吏民有明當世 之務 習先聖之術者 縣次續食 令與計偕)

6 내의녀(內醫女) :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는 의녀(醫女). (『朝鮮宣祖實錄』 33년 6월 辛丑條, 以備忘記 傳于政院曰 側聞內醫女愛鍾 乃淫娼之甚者 本不可近於內殿之側)

백(道伯)[8]으로 하여금 금강산을 두루 보게 하였다. 여행을 마치고 조정에 돌아오니 경대부(卿大夫)[9]들이 모두 이별의 시문(詩文)을 주고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다음과 같이 전기를 썼다.

"사람됨이 몸은 크고 뚱뚱하여 키가 매우 크다. 말은 유순하며 외형은 후덕한 맛이 나타나고, 그 눈은 겹눈동자[10]가 밝고 투명하다. 70 늙은 나이에 얼굴과 머리가 신선이나 부처를 방불케 한다."

이가환의 송별시

만덕은 제주의 훌륭한 여인
예순 나이 마흔쯤으로 보이구료.
평생 모은 돈으로 쌀 팔아 백성을 구제하고
한 번 바다를 건너 궁궐에 조회하였네.
평생 소원 금강산 유람
안개 낀 동북 사이에 있도다.
임금님께서 빠른 역마 하사하시니
천 리 뻗힌 영광 관동(關東) 진동시키네.
높이 올라 멀리 장관 만끽하고
손 흔들며 제주로 돌아가네.

---

7 포마(鋪馬) : 역참에 준비되어 있는 말. 역마(驛馬).

8 도백(道伯) : 관찰사(觀察使)의 다른 이름. 도주(道主).

9 경대부(卿大夫) : 경과 대부. 고급관리를 이름.(『史記』「汲鄭傳」至黯七世 世爲卿大夫)

10 겹눈동자 :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 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史記』「項羽本紀論」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탐라는 아득한 고부량(高夫良)[11]부터 있었지만
제주 여인으로 처음 서울 관광하였지.
우레 같이 왔다가 고니처럼 날아가니
높은 풍채 오래 머물러 세상 맑게 하지.
인생살이 이처럼 이름을 드날리니
옛날 여회청대(女懷淸臺)[12] 어찌 부러워하리.

金萬德

本州良家女로서 幼年에 失恃하여 貧困이 莫甚하더니 及長에 敎坊에 托籍하야 縮衣損食하야 資産이 大致라. 正廟 十九年 乙卯春에 道內가 大飢어늘 萬德이 家産을 盡散하고 糧穀을 貿運하야 貧民을 救濟함이 甚多라. 牧使 奇히 하야 以聞하니, 王이 牧使의게 命하야 그 所願을 聞케 한데, 萬德이 對曰 王都와 金剛山을 求京함이 所願이라 하니 王이 特命을 下하사 縣次로 續食케 하고 京城에 至한 後에는 內醫女에 充하다. 王이 萬德의 左手를 執하고 稱讚한 後 京華를 다 求景케 하고 舖馬를 給하야 道伯으로 하여금 金剛山을 遍覽케 하니

---

11 고부량(高夫良) : 제주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삼을나(三乙那). 즉, 고을나(高乙那)·부을나(夫乙那)·양을나(良乙那).

12 여회청대(女懷淸臺) : 여회청대의 고사(故事). 지금의 사천성 장수현(四川省長壽縣) 남쪽에 있는 대(臺)의 이름. 『史記』「貨殖傳」에 "파(巴)의 과부(寡婦) 청(淸)은, 그 선조가 혈단(丹穴)을 얻어, 그 이익을 여러 세대에 걸쳐 독점하였으며 집이 또한 어림할 수 없이 부유하였음. 청(淸)은 과부인데도, 잘 그 가업을 지키고, 용재(用財)를 자위(自衛)하여 침범을 보지 못하였음. 진시황이 정부(貞婦)라고 하여 객(客)으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어 주었다."고 하고 있음.(『漢書』「貨殖, 巴寡婦淸傳」巴寡婦淸 其先得丹穴 而擅其利數世 家亦不訾 淸寡婦也 能守其業 用財自衛 不見侵犯 秦始皇帝以爲貞婦而客之 爲築女懷淸臺)

라. 旅行을 마치고 還朝하니 卿大夫가 다 別章을 주고 領議政 蔡濟恭이 立傳하다. 爲人이 몸이 富大하고 키가 長大하야 言語가 柔順하며 外形에 厚德한 맛이 나타나고 그 눈은 重瞳이 瑩澈하야 老年七旬에 顔髮이 仙釋에 彷佛하다.

李家煥送別詩 萬德瀛州之奇女 六十顔如四十許 千金羅米救黔首 一航浮海朝紫禦 但願一見金剛山 山在東北烟霧間 至尊頷肯賜飛驛 千里光輝動江關 登高望遠壯心目 飄然揮手還海曲 耽羅遠自高夫良 女子今始觀上國 來如雷喧遊鵠擧 長留古風灑寰宇 人生立名有如此 女懷淸臺安足數

22. 김만덕 묘비문 (金萬德 墓碑文)

【해제】

「김만덕 묘비문」은 1812년 11월 21일 김만덕이 사망하자 세운 묘비의 글이다. 비문은 크게 만덕의 생몰시기, 출신, 성장 과정, 재산 형성, 진휼 과정, 상경과 금강산 유람, 용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조가 내린 특명의 내용과 서울의 많은 공경대부들이 그녀에 관한 글과 전기를 작성했음을 밝혀놓고 있다. 생몰시기와 양손(養孫) 시채(時采)에 대한 이야기, ᄀᆞ으니ᄆᆞ루(竝園旨)에 장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는 다른 자료에는 없는 내용들이다.

김만덕의 본은 김해 김씨요 곧 탐라의 양인 집안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다. 그러나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敎坊)에 의탁한 바 되었으나, 의복을 줄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여 재산이 대단히 커졌다. 정조 을묘년에는 제주도민이 크게 굶주렸는데, 능히 재산을 기울여 곡식을 육지에서 운반하여서 매우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렸다. 목사가 이 착한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하기를 "서울의 화려함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특명으로 고을과 고을을 이어가며 돌아보게 하고, 내의원 의녀로 삼아 여러 차례 은총을 내리시고 역마를 내려주어 일만이천봉을 두루 유람하고 급기야 서울로 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공

경대부 모두가 전별하는 글과 전기를 써주었으니, 비록 옛적에 어질고 아리따운 여자라 하더라도 대개 맛보지 못하였던 바이다. 칠순의 나이의 얼굴과 머릿결임에도 불구하고 선녀와 보살을 방불케 하였고 눈은 쌍겹눈으로 환하고 맑았다. 다만 천도가 무심하여 아이가 없는 게 애석하다. 그러나 양손 시채(時采)가 동기간에서 출계하여 유지를 잘 지키고 영구히 향화하니 또한 섭섭하지 않게 보답하고 있다. 원릉(元陵)[1] 기미년[2]에 낳고 지금 임금[3] 10월 22일에 죽었으므로 다음 달에 ᄀᆞ으니ᄆᆞ루(竝園旨)에 장사하니 갑좌(甲坐)[4]의 무덤이다. 임금이 즉위하신 지 12년 11월 21일에 비를 세우다.

金萬德 本金海 卽耽羅良家女也 幼而失恃 零丁貧苦長 而靡曼托跡敎坊 縮衣損食 貲産滋大 歲在 正宗朝乙卯 島人大飢 能傾財運穀 活命甚衆 牧伯賢之以聞 上問何所欲 對曰 願見京華金剛之勝 而已特命縣次續食 充內醫女寵頒便蕃 因舖馬便覽萬二千峯 及其還 卿大夫 皆贐章立傳 雖古賢媛 盖未嘗 七旬顔髮彷髣仙釋 重瞳炯澈 但天道無心 惜乎無兒 然養孫時采 出自同氣 克遵遺志 永香火亦復奚憾 生于元陵己未 終于當宁壬申 十月二二日 以翌月窆于並園旨 甲坐之原 上之卽位十二年 十一月二十一日立

1 영조의 능을 말함.
2 1739년(영조 15).
3 1812년(순조 12).
4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진 서쪽.

23. 진성기(秦聖麒)의 「만덕할망」
(『남국의 전설』, 』『제주도전설』)

【해제】

이는 구전되는 전설을 채록한 것으로 진성기의 전설 자료집 『남국의 전설』과 『제주도전설』에 동시에 수록되었다. 만덕에 대한 전설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 희귀하여 채록된 각편이 몹시 드문 편이다.

【작자】

진성기(秦聖麒). 1936~ . 민속학자로, 본관은 풍기(豊基), 호는 한집이며, 제주 출생이다. 현재 삼양에 있는 제주민속박물관 관장으로 있다. 『제주도전설』·『남국의 신화』 등 20여 권의 제주민속서를 저술하였다.

만덕할망

만덕의 본은 김해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고생하다가 장성하여서는 교방(敎坊)에 몸 붙이고 살았는데, 본래 자비심이 두터웠고 근면 절약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래서 갑인년(조선 정조 18년) 흉년에는 아사 지경에 이른 수많은 제주 빈민을 구제하기도 하였고 또 미리 곡식을 사들였다가 영세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런 일로 해서 당시의 제주 목사 이우현은 만덕 할망의 마음씨를

높이 칭송하고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쭈었다. 임금님이 들으시고 지극히 아리땁게 여겨 목사로 하여금 할망의 소원을 묻게 하였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몸이라 별소원은 없습니다. 다만 조선의 명승인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임금님은 할망의 겸손에 더욱 감탄하였다. 임금님은 여러 편의와 안내자를 정하여 주어 할머니로 하여금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게 하였다.

만덕 할망이 유람에서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은 별장을 지어 주었고,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만덕 할망의 전을 지어 지금까지 전해온다.